

목차

- I. 원/달러 환율 단기 오버슈팅 구간..... 1
  - 1. 원화 강세의 배경
  - 2. 리스크 선호도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 3. 원/달러 오버슈팅 구간, 일시적 1,100원 하락
  - 4. 일시적 오버슈팅에 그칠 것으로 보는 이유
- II. Macro Weekly..... 5
  - 1. 매크로 체크포인트
  - 2. 2016년 주요국 경제 컨센서스
- III. Money Weekly..... 18
  - 1. 머니맵 & 머니클락
  - 2. 금융시장 동향
- KIS 한국 경제전망..... 31
- 주요 경제 일정..... 32

원/달러 환율 단기 오버슈팅 구간, 1,100원 타겟

원/달러 환율 일시적 오버슈팅 진입 가능성

리스크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신흥국 CDS가 빠르게 하락했으며 미국 VIX는 지난 주 12.7을 기록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리스크 선호 현상으로 신흥국 자금유입이 확대되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 순매수는 7월에서 2.5조 원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주식과 채권을 통한 자금흐름이 외환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면서 최근 자금유입 확대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특히 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균형환율 대비 오버슈팅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균형환율 수준인 원/달러 환율은 리스크 선호도에 따른 신흥국 자금유입으로 1,100원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 다시 1,150-1,200원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분기 국내 무역수지 감소와 경제 성장률 둔화 등 원화 가치의 추세적 강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매크로 체크포인트 (7/18~7/22)

6월 미국 주택착공은 낮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시장지수 반등하며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118만 호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로써 2분기 주택착공 평균은 1분기 평균 115.1만 호보다 높은 117만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7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은 전년비 5.0%, 전월비 0.6%를 전망한다. 1선도시 주택가격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와 신규주택 거래량 둔화가 이어지고 있어 가격 상승 모멘텀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신흥국 자금 순유입 규모 2014년 9월 이후 주간 단위 최대

지난 한 주간(07.07-07.13) 선진국은 주요 12개 신흥국에 총 24.3억 달러(주식 15.0억 달러, 채권 9.3억 달러)를 투자했다. 주식형 펀드가 2주 연속 순 유입을 이어갔으며 채권형 펀드 역시 7주 연속 순 유입을 보이는 등 신흥국 자금 유입이 확대되었고 2014년 9월 이후 주간 단위 최대 순 유입 규모를 기록했다. 그 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인 신흥국 자금흐름 역시 안정적 순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 단기 오버슈팅 구간

기준	타겟 범위	설명
단기균형환율	1,090~1,139원	균형환율 1,151원 대비 1.1~4.5% 오버슈팅 가정
머니맵 확산지수	1,110~1,127원	머니맵 확산지수 저점 당시 1,182원에서 4.5~6.0% 절상
평균	1,100~1,133원	두 기준 값의 평균 범위

자료: 한국투자증권

# I. 원/달러 환율 오버슈팅 구간, 1,100원 타겟

## 1. 원화 강세의 배경

리스크 선호가 되살아나고 있다. 브라질 헤알화 CDS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한국 원화 CDS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미국 VIX 또한 지난 주 12.7을 기록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리스크 선호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 또한 가파르게 진행되는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추적하는 선진국에서 신흥국 주요국 10개국의 자금유입 또한 2014년 9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7월 들어서만 2조 5천 억원을 기록했다.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리스크 선호도가 되살아나면서 원/달러 환율도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브라질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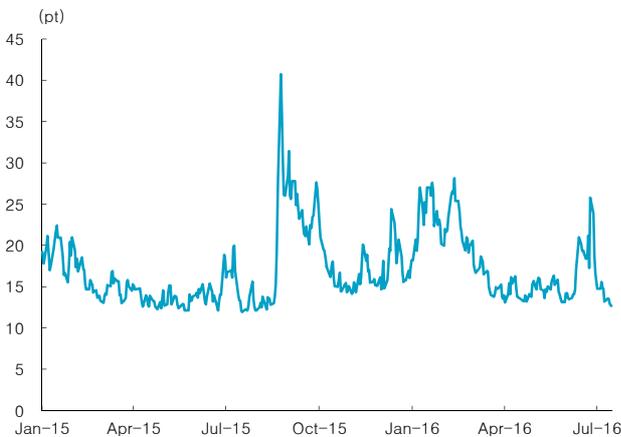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그림 2] 한국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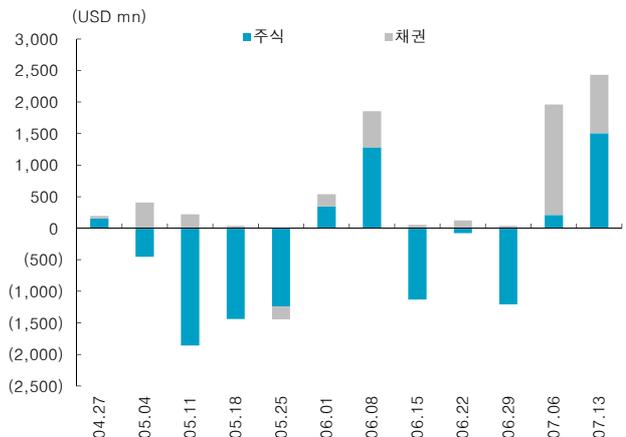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그림 3] 미국 VIX



자료: Datastream

[그림 4] 선진 → 신흥국 자금흐름(주식+채권) 최근 12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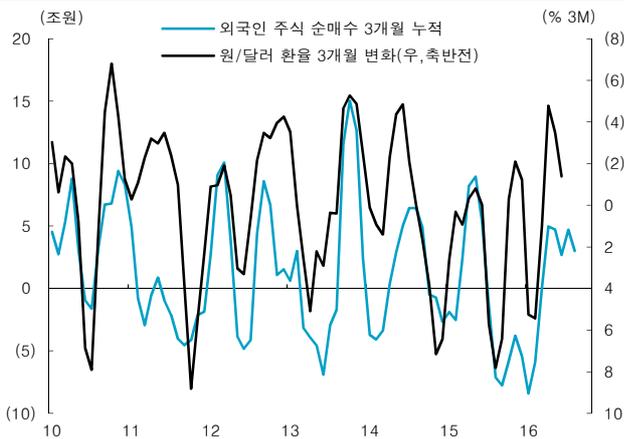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 2. 글로벌 리스크 선호도 변화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금융위기 이후 포트폴리오를 통한 자금흐름이 외환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경상수지와 직접투자 및 금융기관 차입의 영향력이 약화된 가운데 주식과 채권을 통한 자금흐름이 외환시장 자금흐름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포트폴리오를 통한 자금흐름은 리스크 선호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리스크 선호도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변수가 되고 있다. 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지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통한 자금유입이 나타나고 이것이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그림 5]. 이러한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 매우 심화되고 있다.

아래 [그림 6]에서 보듯이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주식순매수 자금의 상관관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0.6 \sim -0.8$ 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살 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60~80% 수준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지면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때 원/달러 환율은 균형환율 대비 오버슈팅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5] 외국인 주식 순매수와 원/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수와 원/달러 환율 상관관계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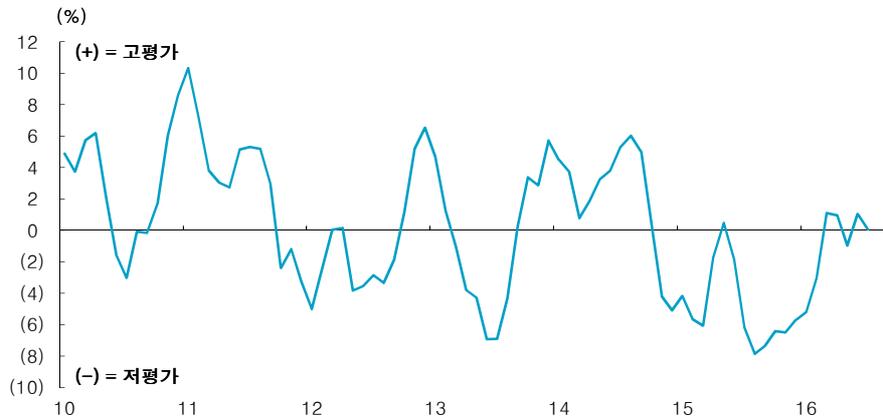
## 3. 원/달러 환율 오버슈팅 구간, 일시적으로 1,100원까지 하락 가능성

현재 우리의 장단기 원/달러 환율 균형 모델로 측정했을 때의 적정 환율 수준은 1,150~1,161원이다. 올해 환율 흐름은 작년 하반기 이후 대체로 균형환율 대비 저평가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최근 3개월 들어 이러한 저평가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단기모델로 측정한 균형환율 수준과 실제 환율 수준간의 괴리도를 보면 1분기는 달러화에 대해 약 2.4% 정도 저평가 되었다. 그러나 2분기는 거의 균형에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되었다[그림 7]. 이것은 장기균형 환율로 보아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현재 글로벌 리스크 선호도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하면 앞으로 국내 시장을 포함한 이머징쪽으로 자금 유입은 이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그림 8].

[그림 7] 원/달러 환율 적정 수준 대비 괴리도



참고: (+) = 고평가 영역, (-) = 저평가 영역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8] 머니맵 확산지수와 원/달러 환율 3개월 변화율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특히 머니맵 확산지수가 지난 6월말 48.2로 저점을 확인했다고 보면 과거 경험상 원/달러 환율은 머니맵 확산지수 상승기에 4.6% 가량 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원/달러 환율의 오버슈팅 가능 범위를 구해 보면 아래 <표1>에서처럼 1,110~1,127원 정도까지 하락이 예상된다. 또한 우리의 단기 원/달러 환율 모델을 통해 오버슈팅 가능 구간을 보면 1,090~1,139원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값을 구해 보면 단기 오버슈팅 구간은 1,100~1,133원이 된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1,100원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균형환율 수준인 1,150원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원/달러 환율 단기 오버슈팅 구간

(단위: 원/달러)

기준	타겟 범위	설명
단기균형환율	1,090~1,139원	균형환율 1,151원 대비 1.1~4.5% 오버슈팅 가정
머니맵 확산지수	1,110~1,127원	머니맵 확산지수 저점 당시 1,182원에서 4.5~6.0% 절상
평균	1,100~1,133원	두 기준 값의 평균 범위

자료: 한국투자증권

#### 4. 일시적 오버슈팅에 그칠 것으로 보는 이유

원화가치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띄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펀더멘탈 측면에서 국내 무역수지는 2분기 275억 달러에서 3분기에는 230억 달러로 2분기를 정점으로 3분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국내 경제는 하반기 2.1%로 성장률이 급락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주식 쪽 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채권 쪽에서의 자금 유출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

금융계정을 통해 최근 3개월 자금유출을 보면 주식에서는 3~5월 누적으로 46.3억 달러가 유출되었고 채권에서는 89.6억 달러가 유출되었다. 채권 쪽 자금유출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 특히 한미간 단기금리 스프레드가 급격히 좁아지면서 단기채권을 통한 자금유출이 올해 월간 평균 3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셋째, 현재 높아지고 있는 리스크 선호도가 하반기 글로벌 경기의 방향성이 다소 불확실하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글로벌 경기 방향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이유다. 10월 이탈리아 헌법 개정을 둘러싼 국민투표도 있고 당장 브렉시트 이후 3분기 유럽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따라서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 강세 기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브렉시트 이후 일시적 리스크 선호도 상승에 따른 오버슈팅 구간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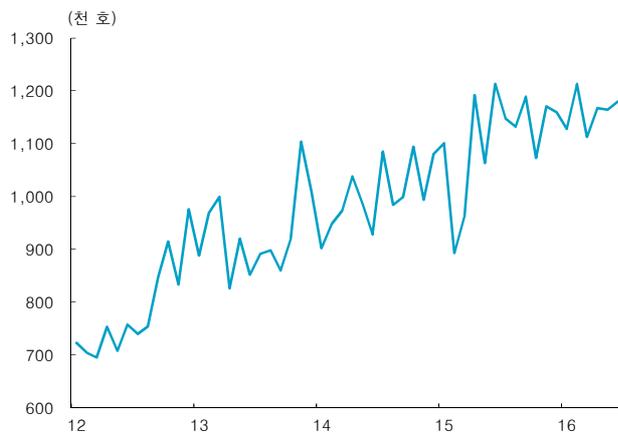
## II. Macro Weekly

### 1. 매크로 체크포인트 (7/18~7/22)

#### 미국 6월 연율 주택착공전월 대비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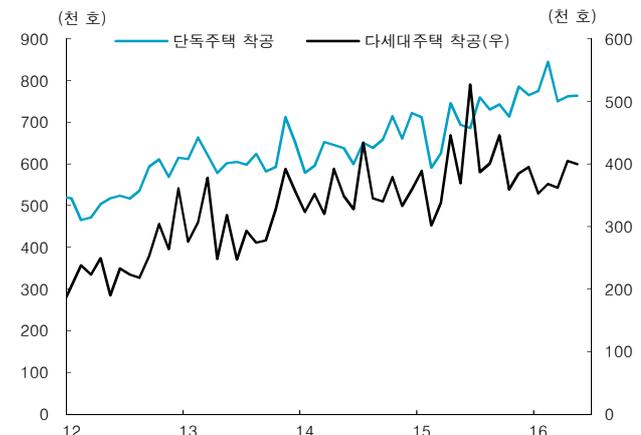
미국 6월 연율 주택착공건수는 전월 116.4만 호 대비 증가한 118만 호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 117만 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이로써 2분기 주택착공 평균은 1분기 평균 115.1만 호보다 높은 117만 호를 기록하며 2분기 주택투자 증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9] 미국 주택착공 추이



자료: CEIC

[그림 10] 주택 종류별 착공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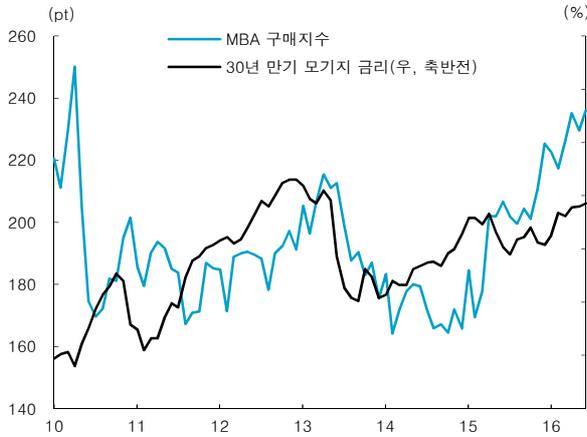
자료: CEIC

변동성이 심한 다세대 주택보다 단독주택에 집중해 보면 우선 주택 수요를 반영한 주간 MBA 모기지 구매지수가 2015년 이후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는 것은(5월 평균 229.6 → 6월 평균 236.1) 장기 모기지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연준의 올해 금리인상은 블랙시트에 따른 달러화 강세 우려로 현저히 낮아진 상태이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저조하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는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른 탄탄한 수요에 힘입어 주택착공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택 공급자 심리를 반영한 NAHB 주택시장지수가 6월 들어 60pt로 상승했다(5월 58pt).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세부항목이 골고루 상승했으며(잠재 구매자 5월 44→6월 47, 단독주택 판매 현황 5월 63→6월 64, 향후 6개월간 단독주택 판매 5월 65→6월 70) 특히 공급자들이 잠재 구매자 방문 증가에 따라 미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주택공급이 시장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이 원활한 단독주택 공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7월 공개된 베이지북에 따르면 12개 Fed 관할 지역 중 4개 지역(필라델피아, 리치몬드, 세인트 루이스, 샌프란시스코)이 높은 토지 가격으로 인해 부지 확보가 어려우며 건설인력 또한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림 11] MBA 구매지수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자료: Bloomberg, CEIC

[그림 12] 단독주택 착공과 NAHB 주택시장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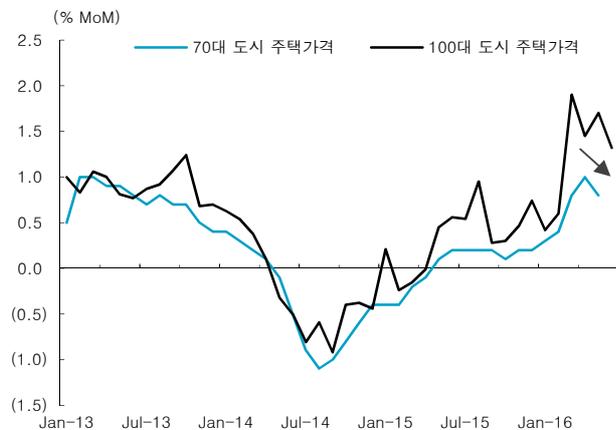
자료: CEIC

**6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 전월비 상승폭 둔화 전망**

6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은 전년비 5.0%, 전월비 0.6%에 그치며 전월비 증가율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5월: 5.0% YoY, 0.8% MoM). 1) 6월 주요 100개 도시 주택가격 증가율의 둔화 지속 2) 부동산 제한 정책으로 1선도시 주택가격 증가율 둔화 3) 토지구매 면적과 신규주택 개발 증가율 둔화가 이어지고 있어 가격 상승 모멘텀이 부족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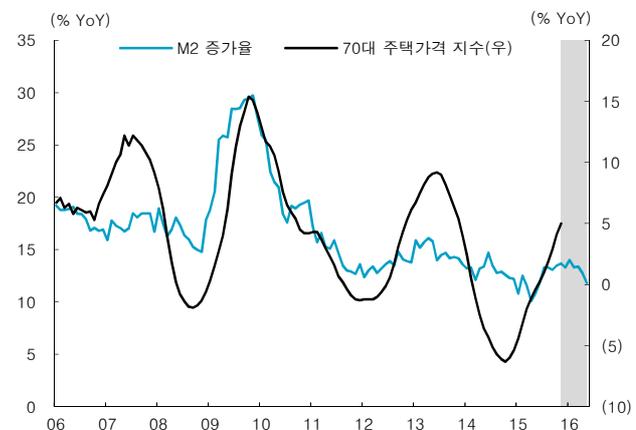
2014년 7월을 기점으로 우 상향 하던 중국 주택가격 증가율이 2016년 4월을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다. 아직 전년비 가격 기준으로는 낮은 기저효과로 증가율 둔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전월비 가격 상승세의 둔화는 3월부터 시작되고 있다. 특히 월 초에 중국 주택지수연구원에서 발표하는 100개 도시 주택가격이 6월 1.32% MoM 증가(5월: 1.7% MoM)하는데 그친 것으로 미루어 가격 상승률의 둔화가 6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택가격에 3-6개월 선행하는 중국 M2 증가율이 2016년 1월 14% YoY를 고점으로 증가율 둔화가 나타나며 주택가격 역시 이를 반영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중국 70대 도시 및 100대 도시 주택 가격지수 증가율



자료: CEIC, Wind

[그림 14] M2 증가율과 중국 70대 주택가격지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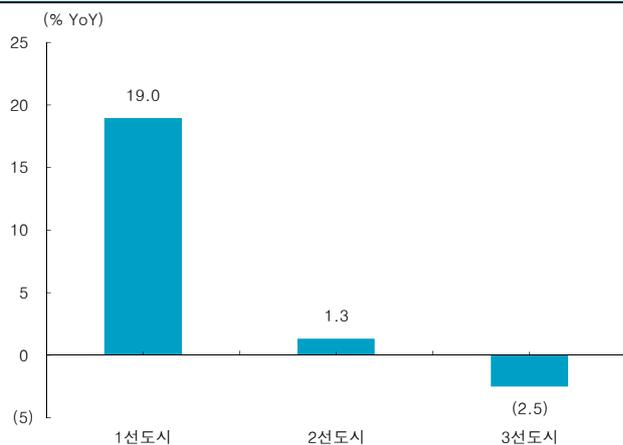


참고: M2 증가율이 70대 주택가격지수 증가율 6개월 선행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2015년 6월 주식시장 폭락을 겪으며 새로운 투자처를 찾던 자금이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유입됐다. 특히 투자매력이 높은 1선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활성화가 이뤄졌고 2016년 5월까지 월 평균 전년비 18.9%의 가파른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 2,3선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1.3% YoY, -2.5% YoY에 그치는 등 지역 불균형 현상을 보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1선도시 및 주요도시의 부동산 구매 제한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2,3선도시 주택 구매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이원화된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2,3선 도시 판매면적 급등에도 불구하고 1선도시 주택 판매면적이 연초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가격 상승둔화가 나타났다. 6월에도 기존 정책 스텐스가 유지되며 가격 상승세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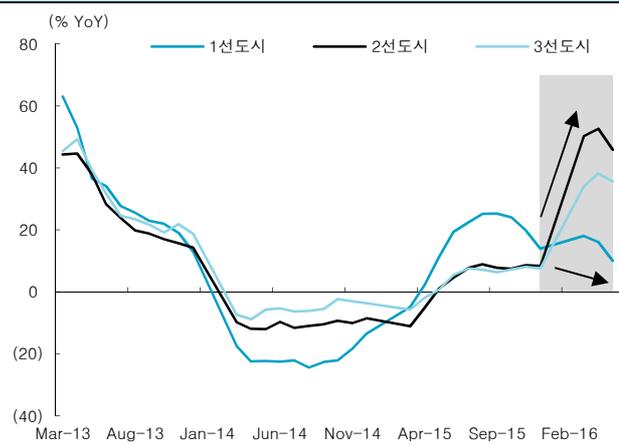
“주택 거래량 → 주택 가격 → 신규 개발투자 → 토지구매”로 이어지는 부동산 순환 사이클에서 현재 소순환 주기의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전월비 기준 증가율 둔화가 이어지는 주택가격과 함께 신규 주택개발 면적 증가율과 토지구매 면적 증가율 역시 4월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다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추세는 하반기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최근 3개월 간 주택 재고면적이 감소하고 있지만 1선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제한정책에 따른 거래량 역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재고 감소 지속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중국 지역별 주택 가격 상승률(2015년 6월 - 2016년 5월 평균)



자료: CEIC

[그림 16] 중국 지역별 주택 판매 면적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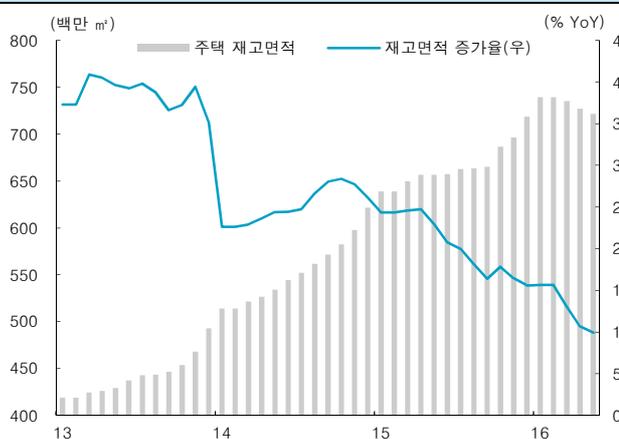
자료: Wind

[그림 17] 토지구매면적 및 주택 신규개발 증가율 추이



자료: CEIC

[그림 18] 중국 주택 재고면적 및 증가율 추이



자료: W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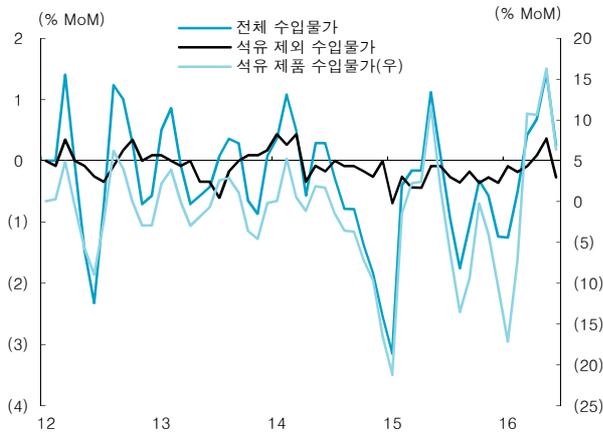
주요 경제지표 리뷰 - 1) 미국 수입물가 2)중국 수출입

미국 6월 수입물가 증가세 둔화

- 미국 6월 수입물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으나 시장예상 0.5% MoM에 못 미치는 수준. 상승세는 전월 1.4% MoM보다 둔화
- 석유제품과 석유 제외 상품의 물가상승 기여도 동반 하락: 석유 제품 6월 0.47%p(5월 1.06%p), 6월 석유 제외 상품 -0.25%p(5월 0.34%p)
- 대내외 수요부진보다는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수입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

[그림 19] 미국 수입물가 추이

<표 2> 항목별 수입물가 추이 (단위: % MoM)



	16년 6월	16년 5월	3개월 평균
석유 제외	(0.3)	0.4	0.1
석유 제품	6.4	16.3	11.1
식품 및 음료	(1.3)	0.5	0.2
산업용 자재	(0.1)	1.5	0.6
자본재	(0.3)	0.0	(0.1)
소비재	(0.2)	0.2	(0.1)
자동차 및 부품	0.0	0.4	0.2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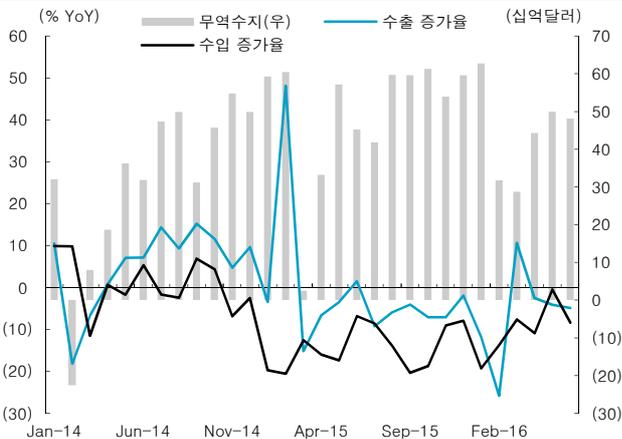
자료: CEIC

6월 중국 수출입 전년비 증가율 하락

- 6월 중국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4.8% YoY(전월 -4.1% YoY), -8.4% YoY(전월 -0.4% YoY) 기록,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481억 달러(전월 500억 달러)로 전월비 소폭 감소
- 수출물량과 수출단가는 각각 -8.3% YoY, 3.7% YoY 기록하며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량 하락으로 전체 수출 감소된 것으로 판단
- 수입물량과 수입단가는 각각 5.7% YoY, -13.3% YoY 기록하며 수출과 반대로 수입단가 하락이 수입 하락을 견인

[그림 20] 중국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

<표 3> 수출입 규모 및 물량, 단가 변화



	16년 6월	전월비 변화	전년비 변화
수출규모(십억달러)	180.4	-0.4%	-4.8%
수출물량(백만톤)	123.4	-14.6%	-8.3%
수출단가(달러)	1,462.3	16.7%	3.7%
수입규모(백만달러)	132.3	0.9%	-8.4%
수입물량(백만톤)	210.9	-1.9%	5.7%
수입단가(달러)	627.0	2.9%	-13.3%

자료: CEIC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표 4〉 주간 주요 경제지표

날짜	이벤트	예상치	발표치	이전치
07/18	미국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60		60
07/19	미국 6월 주택착공 (천 호)	1,170		1,164
07/19	미국 6월 건축허가 (천 호)	1,150		1,138
07/20	미국 주간 MBA 구매지수			234.7
07/21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254
07/21	미국 5월 FHFA 주택가격 MoM	0.4%		0.2%
07/21	미국 6월 기존주택판매 (천 호)	5,460		5,530
07/22	미국 7월 마켓 제조업 PMI	51.5		51.3
07/18~07/22	미국 공화당 전당 대회			
07/18	중국 6월 70개 도시 신규주택 가격 YoY			5.0%
07/19	한국 6월 생산자물가 YoY			-3.1%
07/19	유로존 5월 건설 생산 MoM/YoY			-0.2%/-0.4%
07/19	유로존 7월 ZEW 서베이 예상			20.2
07/20	유로존 7월 소비자기대지수			-7.3
07/21	ECB 통화정책회의			0.00%
07/22	유로존 7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총합 PMI			52.8/52.8/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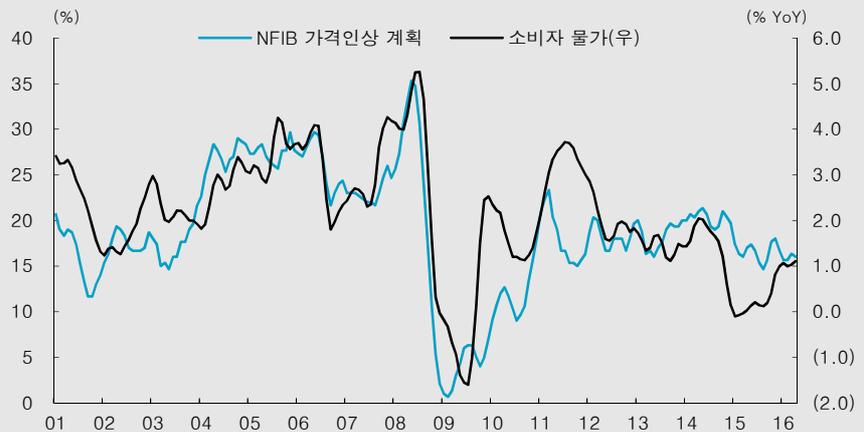
주: 한국시각 기준  
자료: Bloomberg

〈주간 매크로 스쿨27〉

美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 발표기관: 전미자영업자연맹(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 발표주기 및 시기: 매월 두 번째 화요일
- 어떠한 지표인가?  
미국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나타낸다. 전미자영업자연맹에 가입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10가지 항목(사업 확장, 경기 전망, 기대 매출, 현재 수익, 투자 확대, 구인 현황, 고용 계획, 재고 현황, 기대 재고 변화, 기대 신용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체 지수를 산출한다.
- 왜 봐야 하는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수출보다는 내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지수를 통해 서비스업 경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세부항목인 고용 계획을 통해 향후 서비스부문 고용을 예측해볼 수 있다.
- 세부항목  
위에 언급된 10가지 세부항목을 제외하고 주의 깊게 봐야 할 항목은 1)가격인상 기대 2)임금인상 기대 3)매출에 대한 기대이다. 가격인상 기대와 임금인상 기대 간의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기업 수익마진이 개선 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총 이익을 극대화를 위해 생산을 확대할 것이며 이는 매출에 대한 기대 상승으로 이어진다.
- 함께 보면 좋은 지표  
NFIB 가격인상 계획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2001년~2016년 5월 상관관계 0.72).

[그림 21] NFIB 가격인상 계획과 미국 소비자 물가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 〈주간 매크로 스쿨28〉

#### 中 70대 도시 주택 가격지수(Property Price Index)

- 발표기관: 국가통계국(NBS)
- 발표주기 및 시기: 통상 매월 18일 전후
- 어떠한 지표인가?

중국 내 4대 직할시(북경, 상해, 천진, 충칭)와 31개 성의 대표 도시, 그 밖에 대표성을 가지는 35개 도시를 선정해 발표한다. 도시 선정 기준은 해당 도시의 경제력, 주택 거래량 및 도시규모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을 반영한 대표성을 지닌 도시를 선정한다. 2011년 처음 발표되기 시작해 월간 단위 발표되고 있다.

- 왜 봐야 하는가?

주택 가격은 전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종합지표이다. 주택 가격상승은 토지구매부터 주택착공, 주택판매 증가와 함께 이와 관련된 금융, 건설, 가구, 소매업 등 전반적인 경기호황이 이어진다. 특히 중국은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수입원이 토지양도세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CPI 바스켓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은 임대료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경기 선 순환을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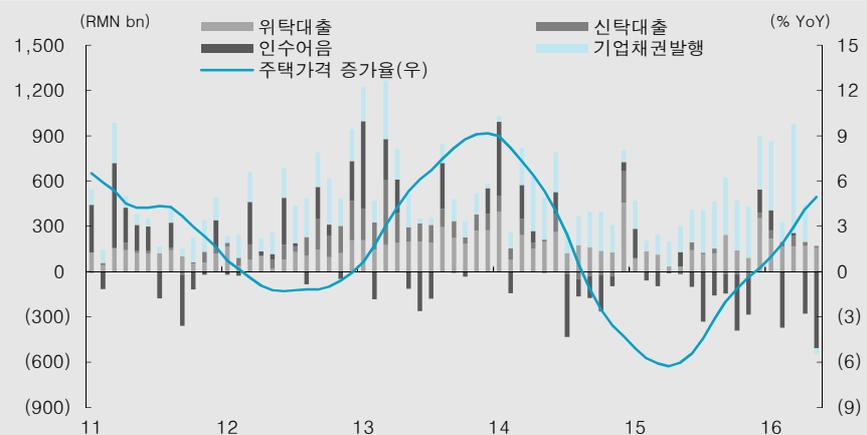
- 세부항목

70개 도시 주택 가격지수는 신규주택과 중고주택 가격을 각각 구분해 발표한다. 먼저 신규주택 가격지수는 실제 해당 도시의 부동산관리부의 판매가격, 거래면적 등 실제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고 있다. 반면 중고주택 가격은 부동산관리기관의 보고된 내용과 조사원의 표본조사를 기초 데이터로 통계화 하고 있다. 그 밖에 각 70개 도시의 개별 신규주택과 중고주택 가격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면적 별(90㎡ 이하, 90~144㎡, 144㎡ 이상)로 세분화된 가격 지수 역시 제공하고 있다.

- 함께 보면 좋은 지표

부동산시장은 자금흐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중국 부동산은 위탁대출, 신탁대출, 인수어음, 기업채권발행 등 사회용자총액에서 그림자금융으로 구분되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22] 70대 도시 주택가격 증가율과 그림자 금융 자금 증감



자료: CEIC

2016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  
전주대비 0.1%p 하락한  
2.9%

## 2. 2016년 주요국 경제 컨센서스

- 지난 주 글로벌 성장률 컨센서스는 전주 대비 0.1%p 하락한 2.9%를 기록했다. 신흥국 성장률 컨센서스는 변화가 없었으나 선진국 성장률 컨센서스가 소폭 하락하면서 신흥국-선진국 성장률 스프레드는 2.34%p에서 2.35%p로 상승했다.
- 최근 성장률 컨센서스가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국가는 영국이었다. 지난 4주간 성장률 전망치가 0.3%p 하락했다.
- 한편 글로벌 성장률 컨센서스 확산지수는 전주 50pt 대비 하락한 47pt를 기록했다.

〈표 5〉 주요국 성장률 컨센서스

(단위: % YoY,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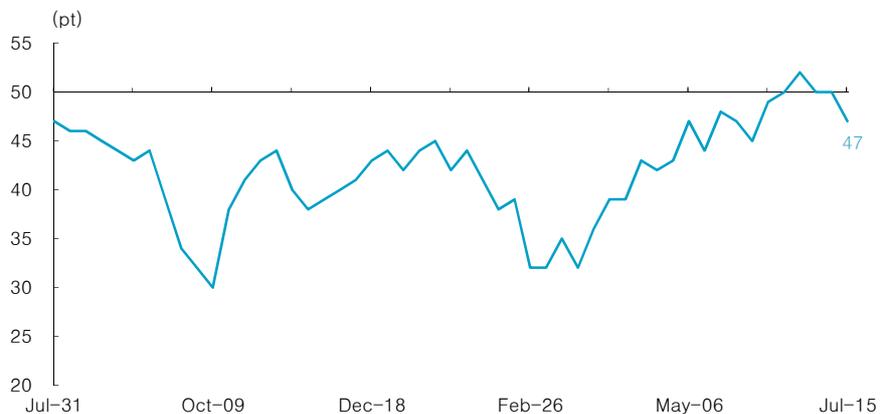
	현재	전주 대비	전월 대비	연초 대비	3개월 전 대비	12개월 전 대비
글로벌	2.90	(0.10)	(0.10)	(0.40)	(0.10)	(0.60)
선진	1.62	(0.01)	(0.01)	(0.45)	(0.07)	(0.59)
미국	1.90	0.00	0.00	(0.60)	(0.10)	(0.80)
유로존	1.50	0.00	0.00	(0.20)	0.00	(0.20)
일본	0.50	0.00	0.00	(0.60)	0.00	(0.90)
독일	1.60	0.00	(0.10)	(0.20)	0.10	(0.30)
신흥	3.97	0.00	(0.30)	(0.61)	(0.36)	(1.15)
중국	6.50	0.00	0.00	0.00	0.00	(0.20)
브라질	(3.45)	0.00	0.35	(0.95)	0.25	(4.25)
인도	7.50	0.00	0.00	0.10	0.00	(0.10)
러시아	(0.80)	0.00	0.20	(0.30)	0.50	(1.30)
한국	2.60	0.00	0.00	(0.30)	0.00	(0.80)

자료: Bloomberg

### 〈해설도우미〉 글로벌 성장률 컨센서스 확산지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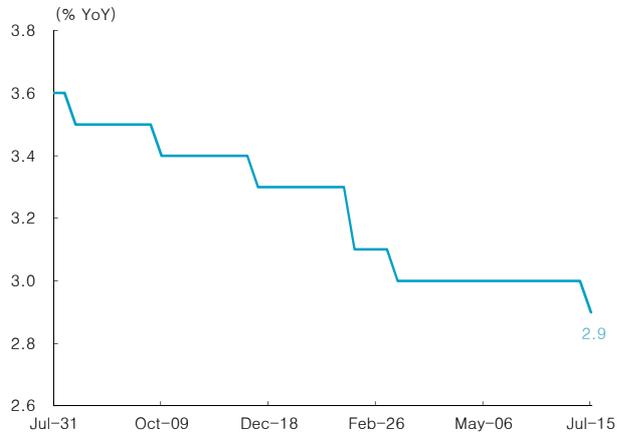
- Bloomberg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GDP 성장률 컨센서스를 기초로 주간 단위 컨센서스 변화 추이를 추적하며, 주요 선진 10개국과 신흥 10개국으로 구성
- 경기 펀더멘털을 직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GDP에 대한 전주 대비 변화를 기준으로 하며, 전주대비 컨센서스 상향조정은 +1점, 하향조정은 -1점을 부여해 지수 산출
- 선진국은 미국, 유로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 이상 10개국 선정
- 신흥국은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폴란드, 남아공 등 이상 10개국 선정

〈그림 23〉 글로벌 성장률 컨센서스 확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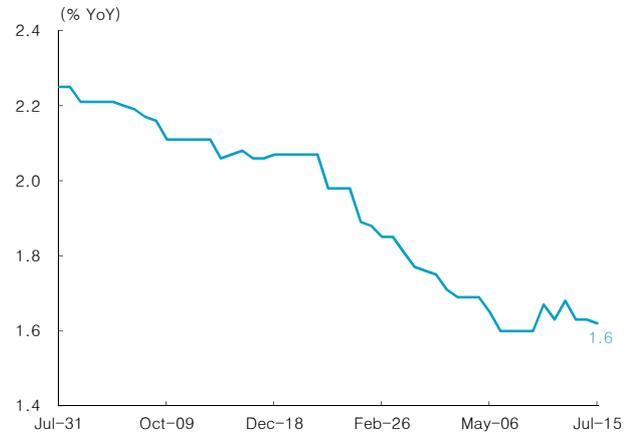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4] 글로벌 성장률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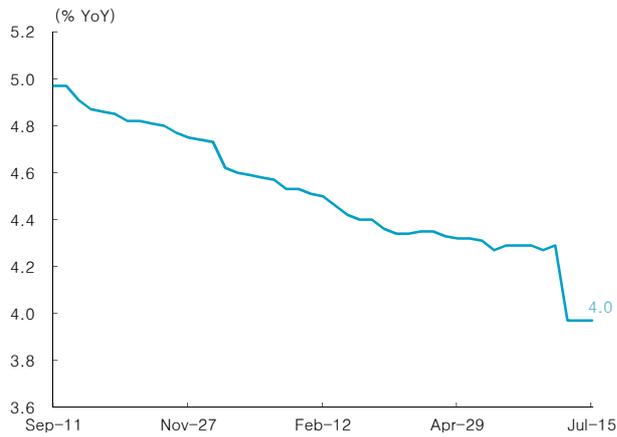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25] 선진국 성장률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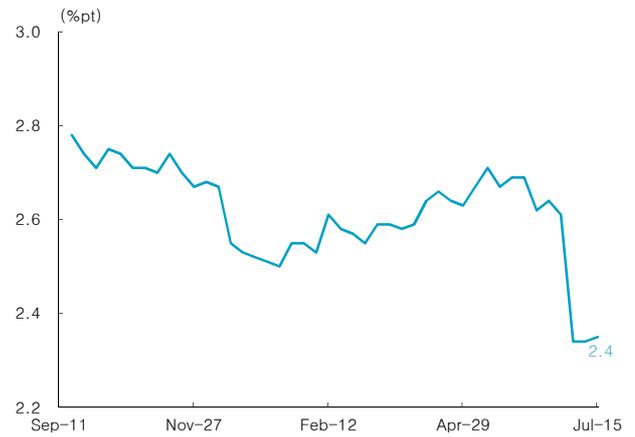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26] 신흥국 성장률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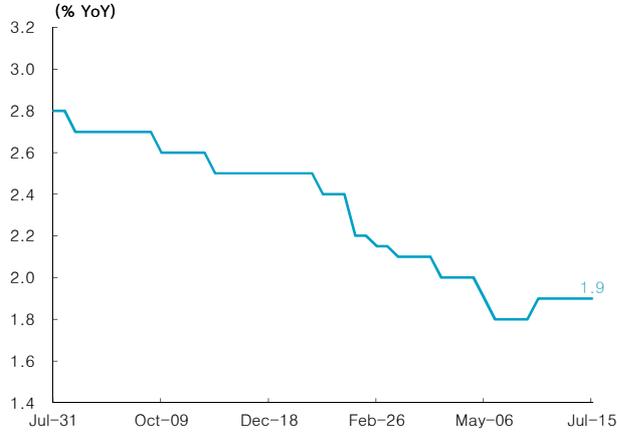
[그림 27] 신흥국-선진국 성장률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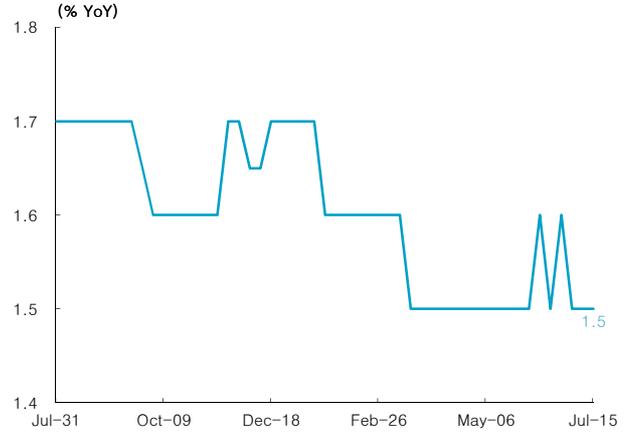
선진 10개국 경제 전망 컨센서스

[그림 28] 미국 성장률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그림 29] 유로존 성장률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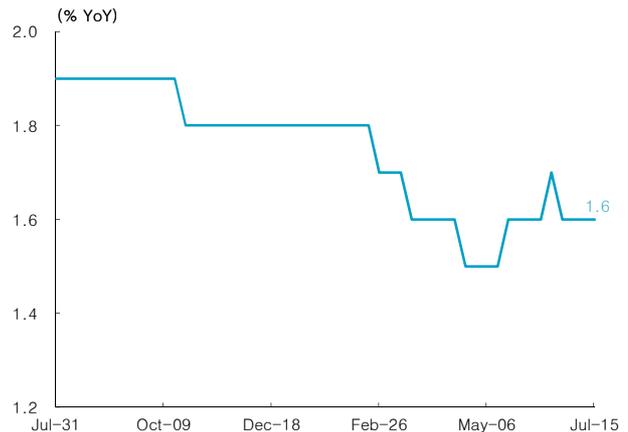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30] 일본 성장률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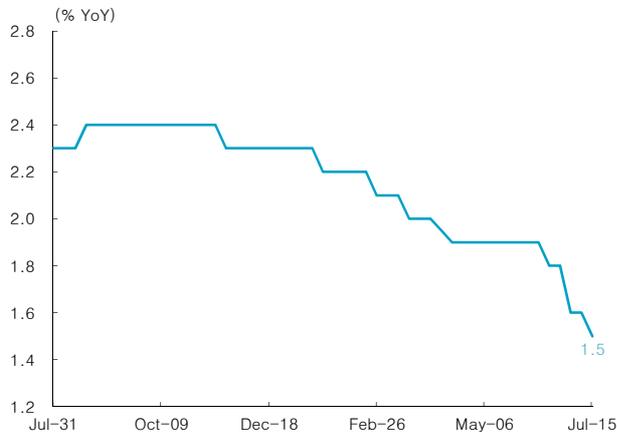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31] 독일 성장률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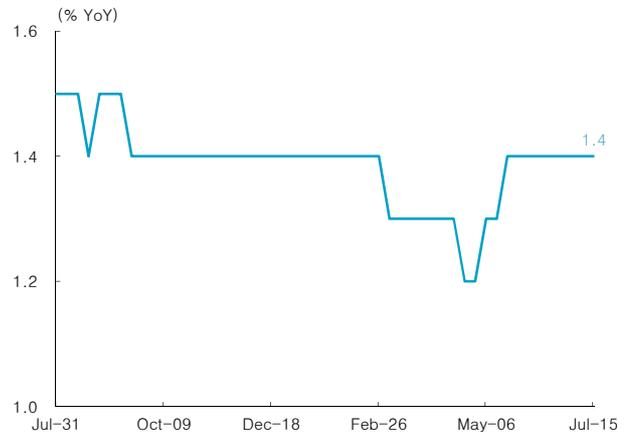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32] 영국 성장률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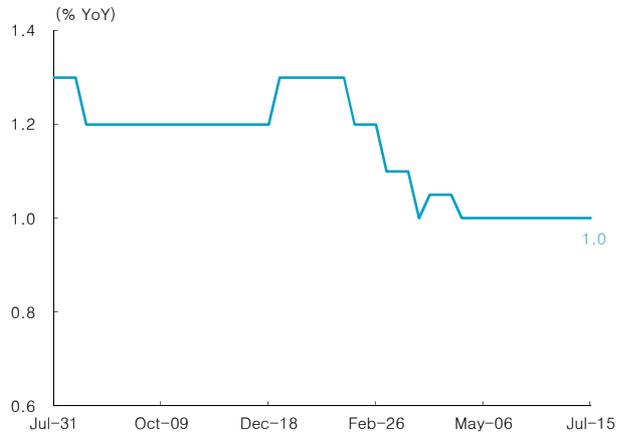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33] 프랑스 성장률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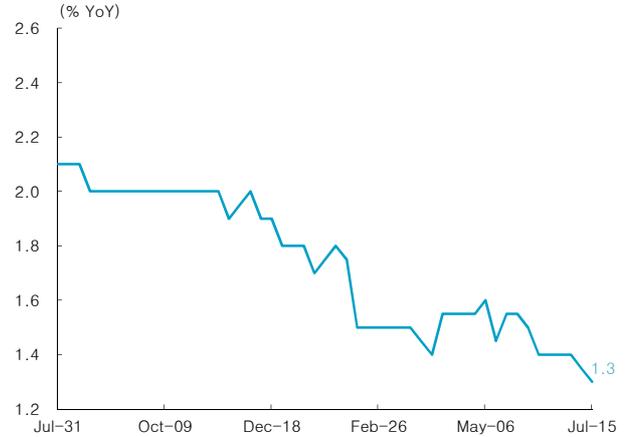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34] 이탈리아 성장률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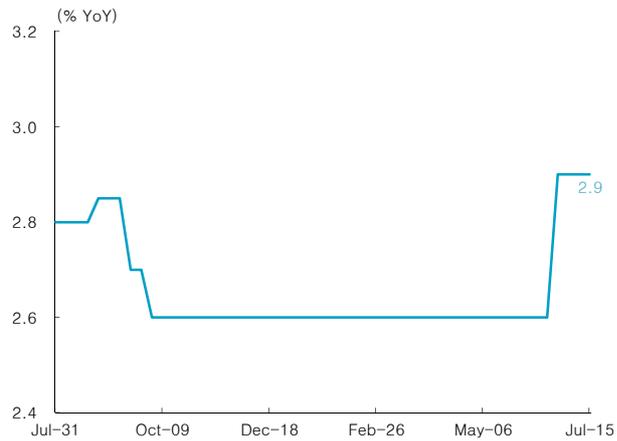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35] 캐나다 성장률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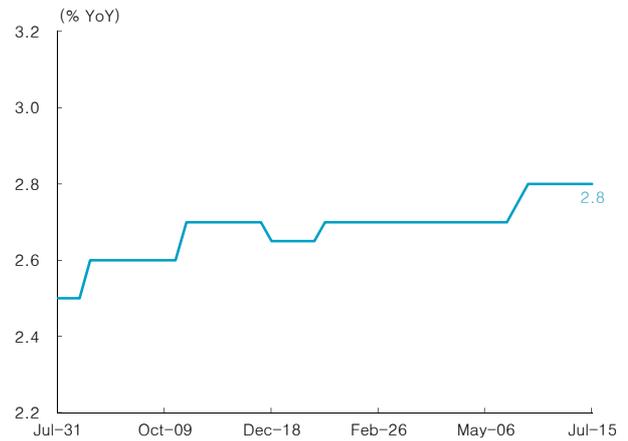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36] 호주 성장률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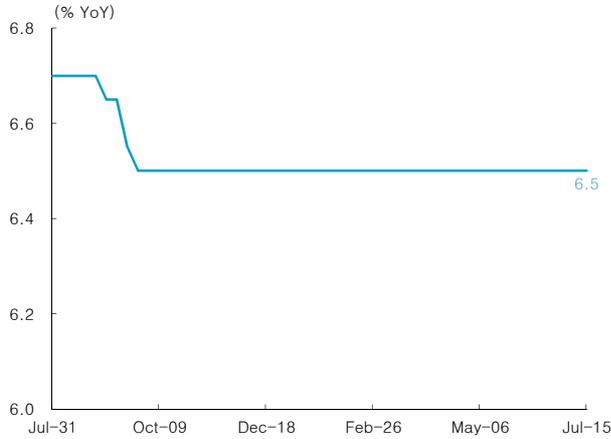
[그림 37] 스페인 성장률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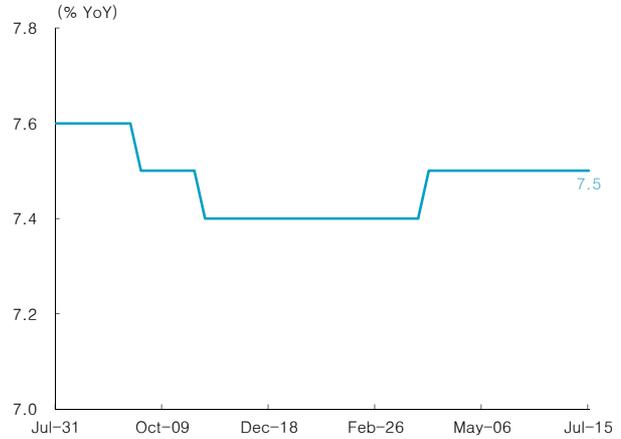
신흥 10개국 경제 전망 컨센서스

[그림 38] 중국 성장률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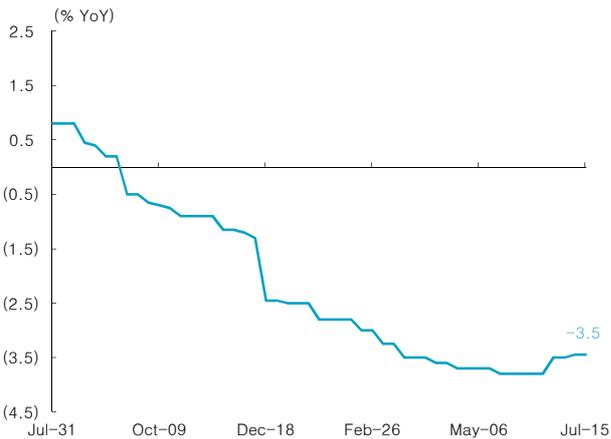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39] 인도 성장률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그림 40] 브라질 성장률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그림 41] 러시아 성장률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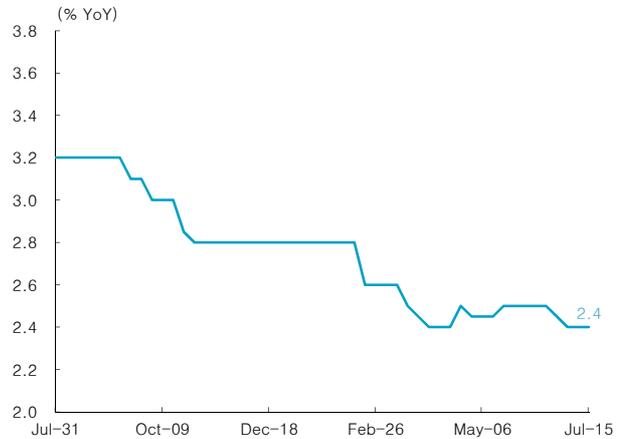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42] 한국 성장률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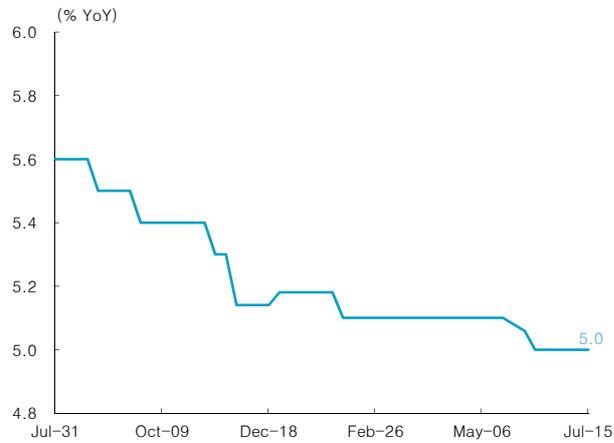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43] 멕시코 성장률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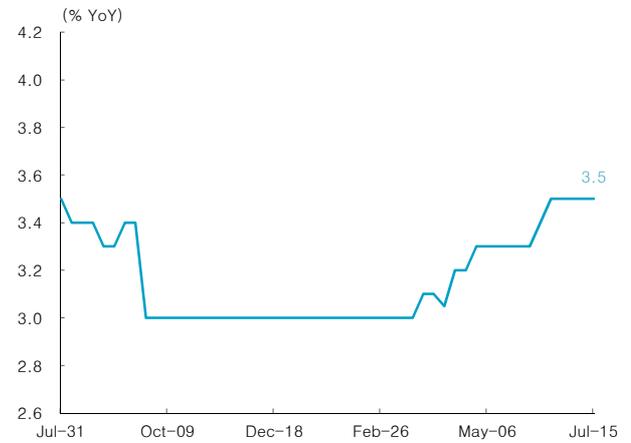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44] 인도네시아 성장률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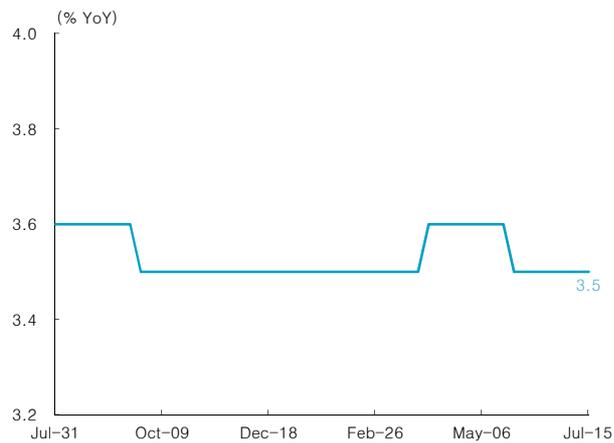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45] 터키 성장률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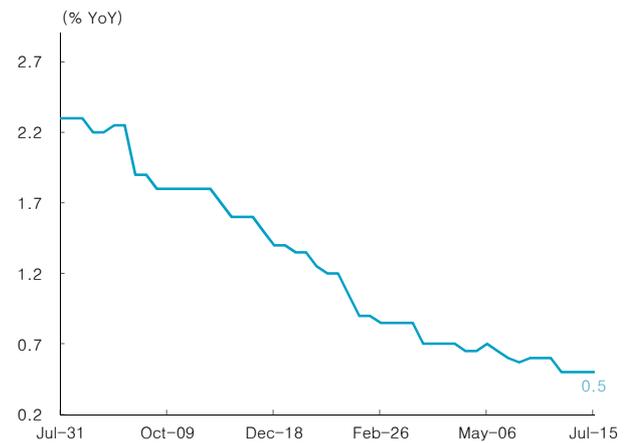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46] 폴란드 성장률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그림 47] 남아공 성장률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 III. Money Weekly

#### 1. 머니맵 & 머니클락

##### 〈해설도우미〉 주간 머니맵이란?

-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유출입 되는 EPFR Fund-Flow에서 Country-Flow를 추적하는 데이터로 최근 12주 누적 데이터와 주간 데이터 흐름 분석
- 국가 간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국제수지는 국가 간 자금 출처가 불분명 하고 속보성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EPFR 데이터는 높은 속보성과 분명한 자금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짐
- 신흥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폴란드, 러시아, 남아공, 태국, 터키 등 이상 12개국 선정
- 선진국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케이먼, 호주, 캐나다 등 이상 14개국 선정

##### 신흥국 자금 순유입 규모 2014년 9월 이후 주간 단위 최대

신흥국 총 24.3억 달러 유입  
2014년 9월 이후 최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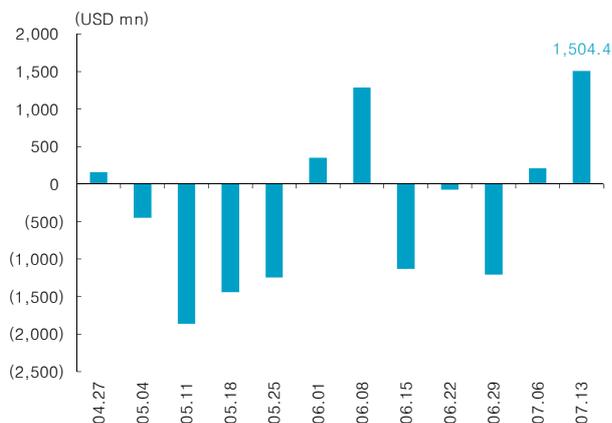
- 지난 한 주간(07.07-07.13) 선진국은 주요 12개 신흥국에 총 24.3억 달러(주식 15.0억 달러, 채권 9.3억 달러)를 투자했다. 주식형 펀드가 2주 연속 순 유입을 이어갔으며 채권형 펀드 역시 7주 연속 순 유입을 보이는 등 신흥국 자금 유입이 확대되었고 2014년 9월 이후 주간 단위 최대 순 유입 규모를 기록했다.

- 지난 6일 미국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28만 7천 명에 달하며 미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는 크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임금상승률과 주간 근무시간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나타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더 크게 회복되었고 신흥국 자금 순 유입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브렉시트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는 완화됐다. 이탈리아 은행권 부실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지만 추가적인 EU 탈퇴를 방어하기 위해 EU가 공적자금 투입을 승인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BOE 역시 7월 금리동결에도 불구하고 8월 추가 경기부양에 동의하며 금리인하 및 자산매입 등 다양한 완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인 신흥국 자금흐름 역시 안정적 순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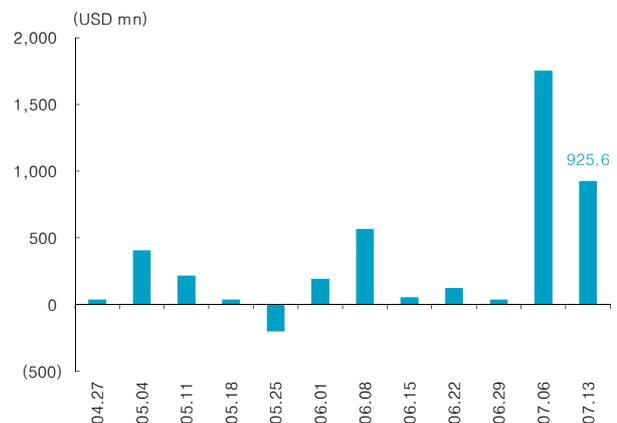
- 신흥국 머니맵 차트북은 한국과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이 된 브라질, 인도로 구성했다.

[그림 48] 주간 Money Flow - 최근 12주(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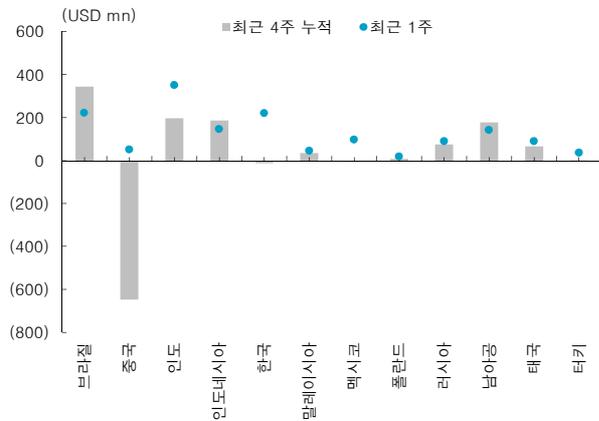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49] 주간 Money Flow - 최근 12주(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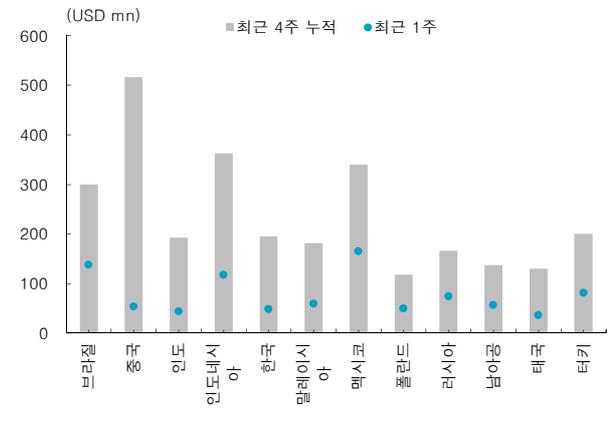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50] 국가별 Money Flow – 최근 4주 누적&최근 1주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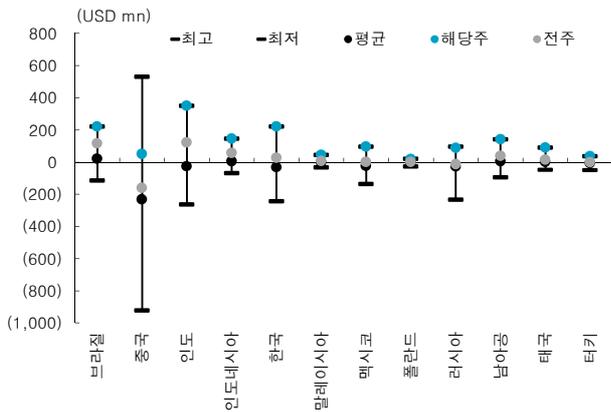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51] 국가별 Money Flow – 최근 4주 누적&최근 1주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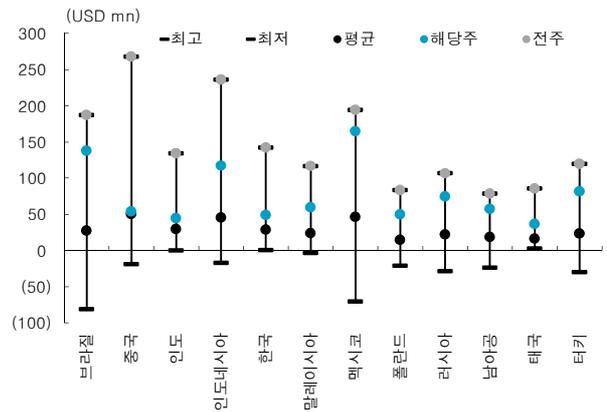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52] 국가별 Money Flow – 최근 12주 최고, 최저, 평균(주식)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53] 국가별 Money Flow – 최근 12주 최고, 최저, 평균(채권)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표 6> Weekly Money Flow 기준일: (2016.07.07 ~ 07.13)

(단위: USD mn)

국가	자산규모	자금유출입(07.07~07.13)		자금유출입(06.30~07.06)		4주누적(06.16~07.13)		12주누적(04.21~07.13)	
		순유입	상대강도(%)	순유입	상대강도(%)	순유입	상대강도(%)	순유입	상대강도(%)
브라질	34,919	359.3	1.03	303.6	0.87	644.3	1.84	585.3	1.68
중국	27,045	104.3	0.39	105.6	0.39	-131.1	-0.48	-2,178.9	-8.06
인도	21,734	395.0	1.82	256.9	1.18	389.4	1.79	33.2	0.15
인도네시아	12,725	262.6	2.06	293.2	2.30	549.1	4.31	608.7	4.78
한국	40,261	269.5	0.67	168.7	0.42	183.5	0.46	-51.9	-0.13
말레이시아	6,993	104.9	1.50	124.7	1.78	217.5	3.11	249.8	3.57
멕시코	22,510	260.8	1.16	195.5	0.87	333.5	1.48	267.7	1.19
폴란드	5,505	68.8	1.25	83.6	1.52	126.1	2.29	136.6	2.48
러시아	24,249	163.2	0.67	93.6	0.39	241.9	1.00	-75.9	-0.31
남아공	18,312	198.7	1.09	116.3	0.64	315.8	1.72	270.7	1.48
태국	4,390	125.9	2.87	101.1	2.30	197.5	4.50	197.9	4.51
터키	8,892	117.2	1.32	118.5	1.33	201.3	2.26	197.8	2.22
<b>합계</b>	<b>225,105</b>	<b>2,430</b>	<b>1.08</b>	<b>1,961</b>	<b>0.87</b>	<b>3,269</b>	<b>1.45</b>	<b>241</b>	<b>0.11</b>

참고: 자산규모는 1997년부터 누적 데이터, 상대강도 = 순유입 / 주초 총자산 \* 100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주식과 채권 머니클락 각각 유출 회복, 유출 시작국면 진입

머니클락

주식과 채권 머니클락 각각 유출 회복, 유출 시작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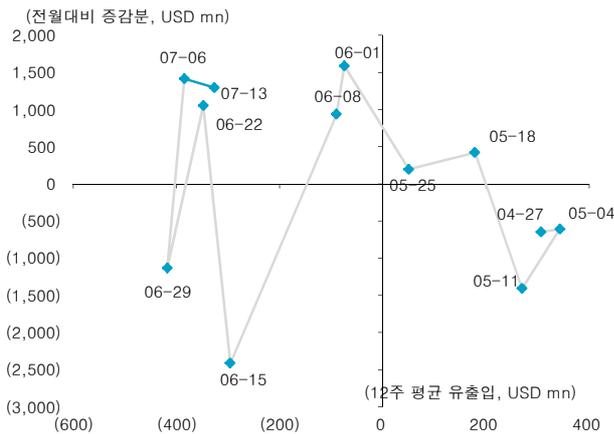
- 주식 머니클락이 유출 회복국면을 유지한 반면 채권 머니클락은 유출 시작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세로 전환되며 주식형 펀드 자금이 크게 증가하고 채권형 펀드의 신흥국 자금유입 역시 순 유입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브렉시트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 금리인상 지연 및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이어지며 신흥국 자금흐름의 순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머니클락 차트 해설도우미 참조).

머니맵 확산지수

주식 머니맵 확산지수 2주 연속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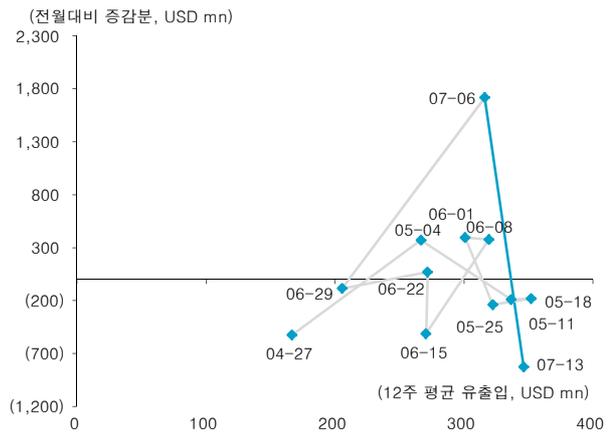
- 머니맵 확산지수는 주식 48.8(+0.2p), 채권 50.4(-0.7p)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신흥국 내 채권형 펀드로 자금 쏠림이 나타난 6월과 달리 7월 들어 주식형 펀드의 자금 순 유입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머니맵 확산지수가 48.2를 저점으로 2주 연속 상승 반전을 이어나가며 지수의 추세 전환이 기대된다. 채권 확산지수 역시 전체적인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으로 신흥국 자금흐름이 개선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머니맵 확산지수 해설도우미 참조).

[그림 54] 주식 머니클락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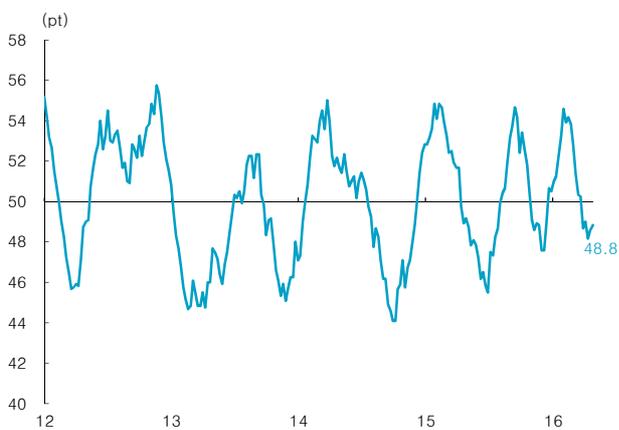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55] 채권 머니클락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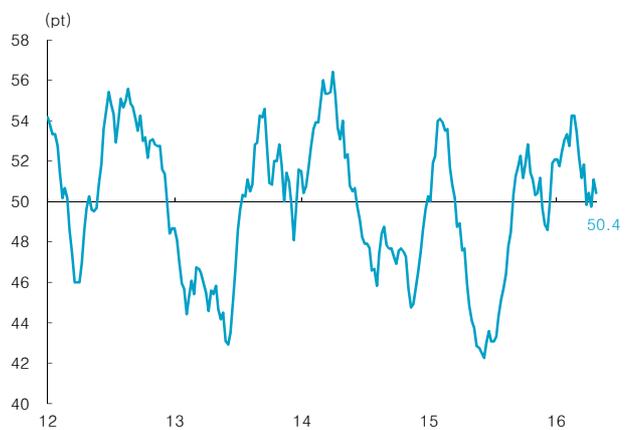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56] 머니맵 확산지수(주식, 12주 이동평균)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57] 머니맵 확산지수(채권, 12주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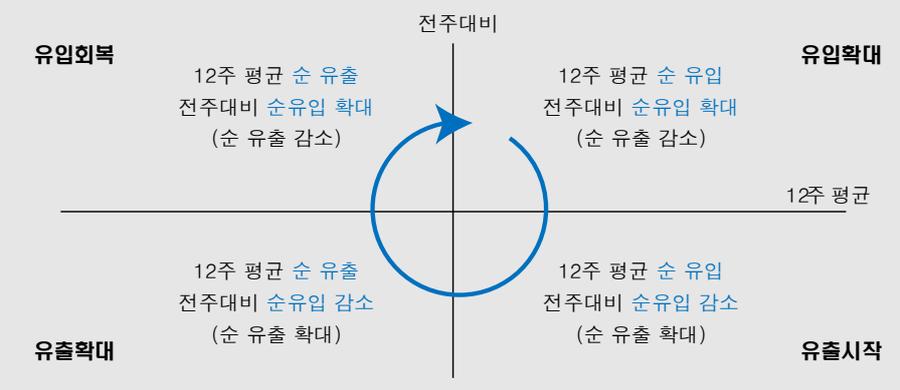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해설도우미〉 머니클락 차트란?

- 12주 평균 자금 유출입과 전주비 증감분을 기준으로 분산형 차트를 구성
- 분산차트는 시계열 흐름에 따라 12개 신흥국가의 자금 흐름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차트로 4개의 사분면을 통해 자금 흐름의 방향성을 기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일반적으로 신흥국 자금 유출이 시작되면 4사분면에 점표가 형성되며,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3사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임
- 한편, 2사분면에 점표가 집중되는 것은 신흥국 자금 유출 회복 시그널로 해석되며, 1사분면에 가까워지면서 자금 유입이 가속화 되는 것으로 판단

[그림 58] 머니클락 차트 각 사분면 의미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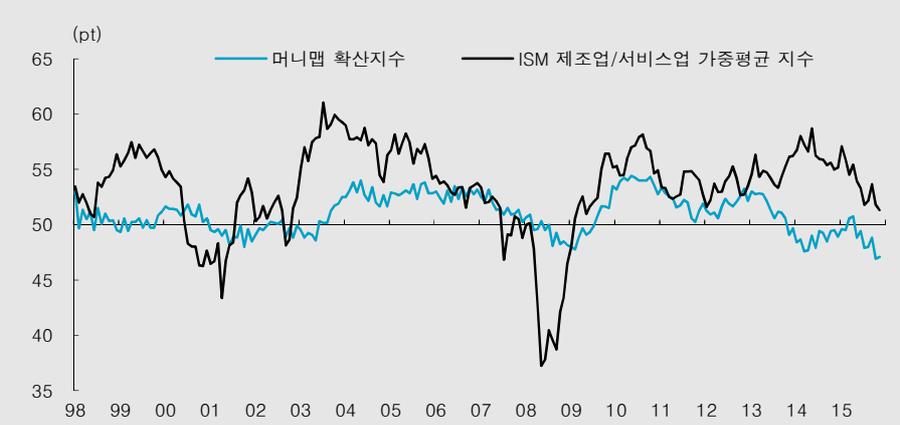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해설도우미〉 머니맵 확산지수란?

- 머니클락 차트와 동일하게 12주 평균 자금 유출입과 전주대비 증감분을 기준으로 확산지수를 구성
- 12개 개별 신흥국가의 머니클락 차트가 1사분면에 위치하면 +1점, 3사분면에서 위치하면 -1점, 2/4사분면에 위치하면 0점을 부여해 개별 신흥국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산출
- 50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자금 유입국면이 확대되고 있음을 뜻하며, 하회하면 자본유출 국면 확대를 의미
- 머니클락 차트의 보조지표로 장기적인 흐름에서 현재 위치한 추세를 관찰하기 용이한 지표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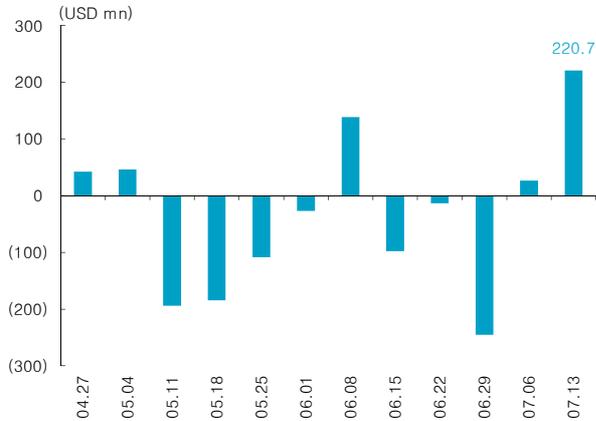
[그림 59] 머니맵 확산지수와 미국 ISM 제조업/서비스업 가중평균 지수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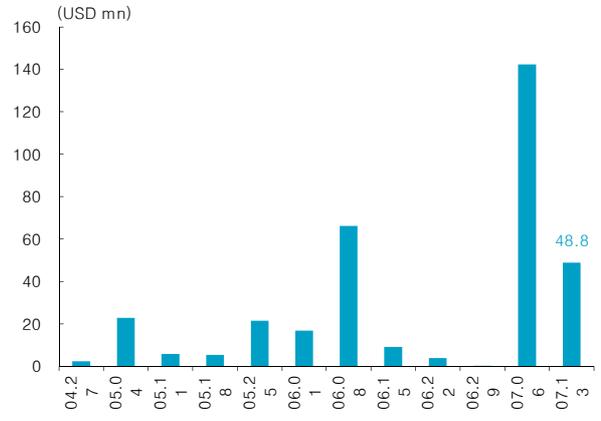
Weekly Money Flow – 한국

[그림 60] 주간 Money Flow – 최근 12주(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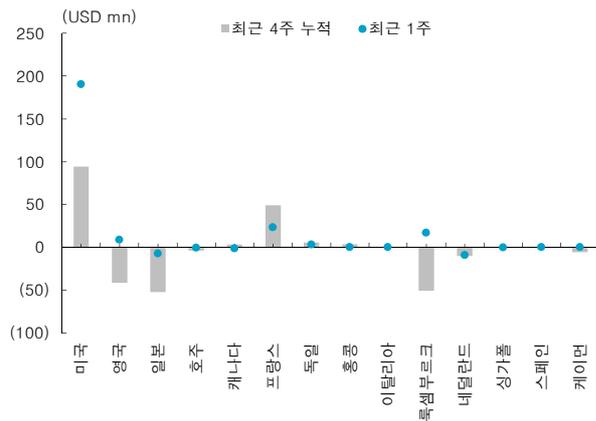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61] 주간 Money Flow – 최근 12주(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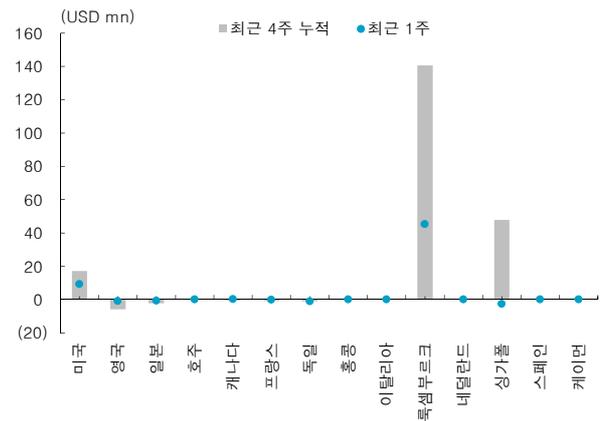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62] 한국 Money Flow – 최근 4주 누적&최근 1주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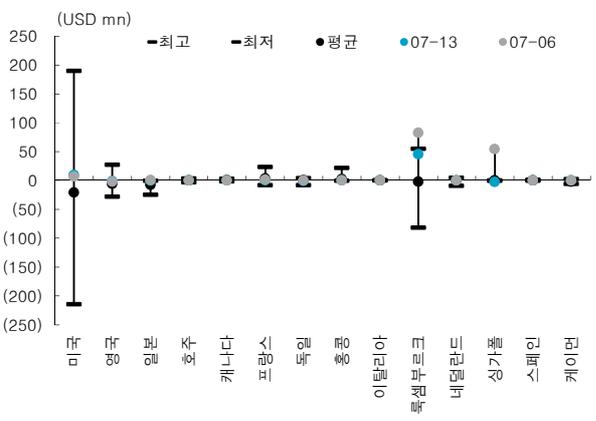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63] 한국 Money Flow – 최근 4주 누적&최근 1주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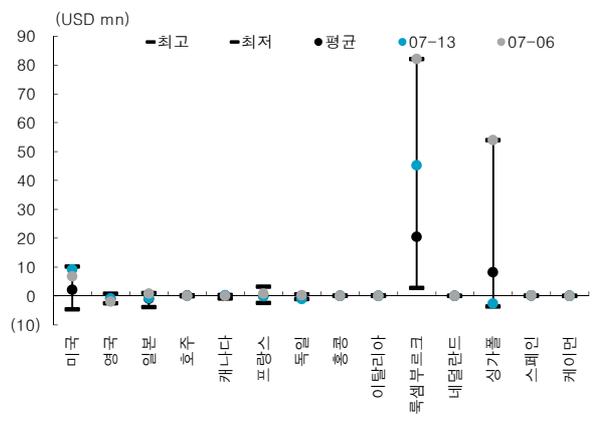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64] 한국 Money Flow – 최근 12주 최고, 최저, 평균(주식)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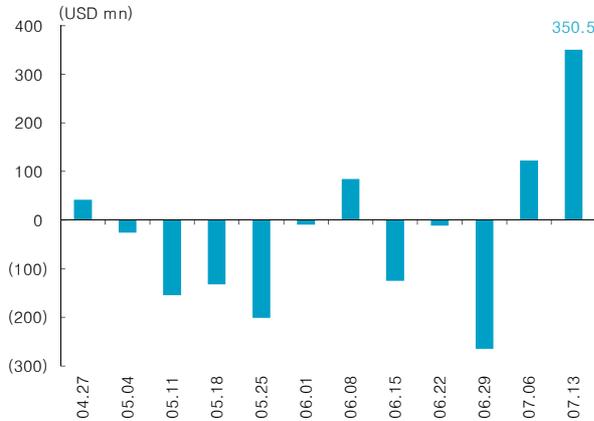
[그림 65] 한국 Money Flow – 최근 12주 최고, 최저, 평균(채권)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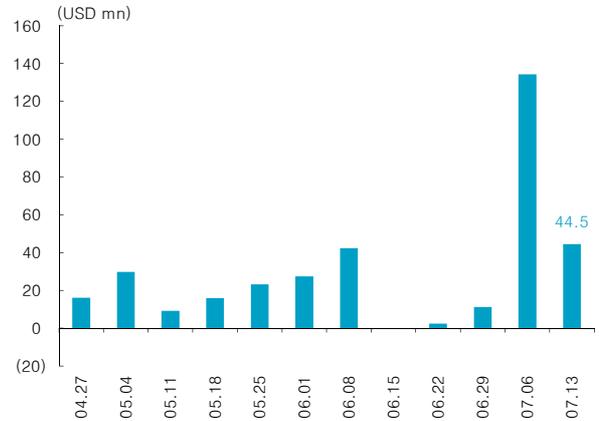
Weekly Money Flow – 인도

[그림 66] 주간 Money Flow – 최근 12주(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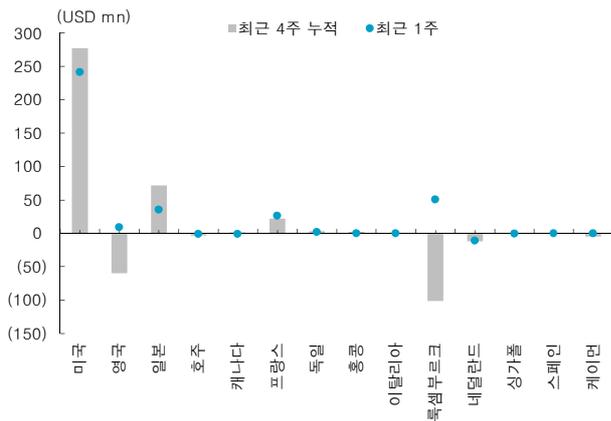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67] 주간 Money Flow – 최근 12주(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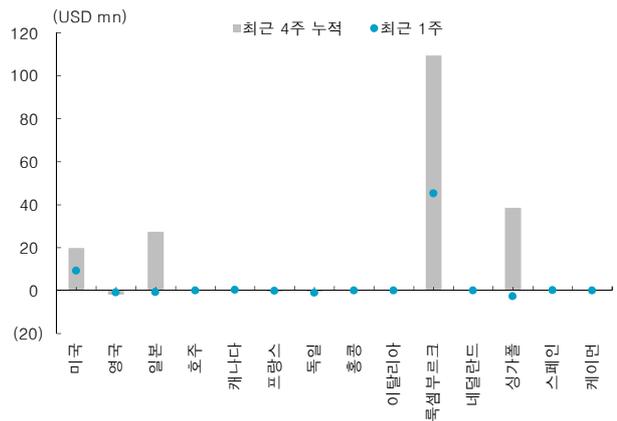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68] 인도 Money Flow – 최근 4주 누적&최근 1주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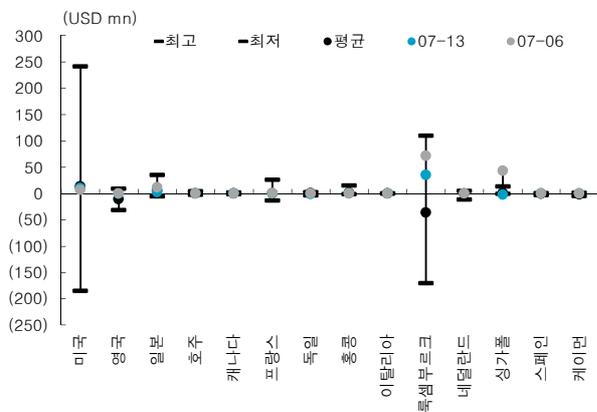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69] 인도 Money Flow – 최근 4주 누적&최근 1주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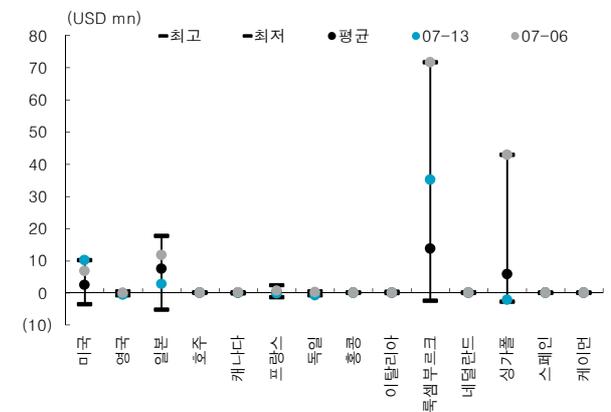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70] 인도 Money Flow – 최근 12주 최고, 최저, 평균(주식)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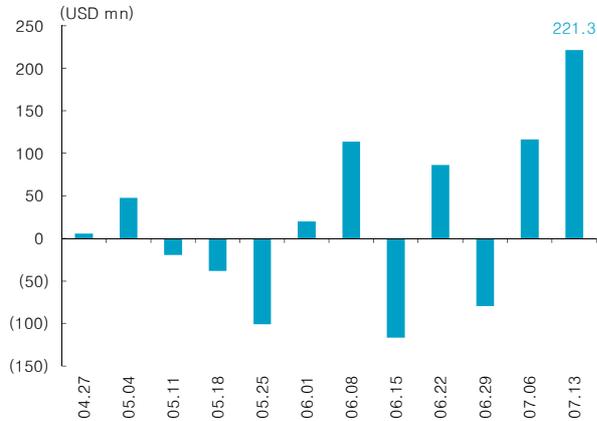
[그림 71] 인도 Money Flow – 최근 12주 최고, 최저, 평균(채권)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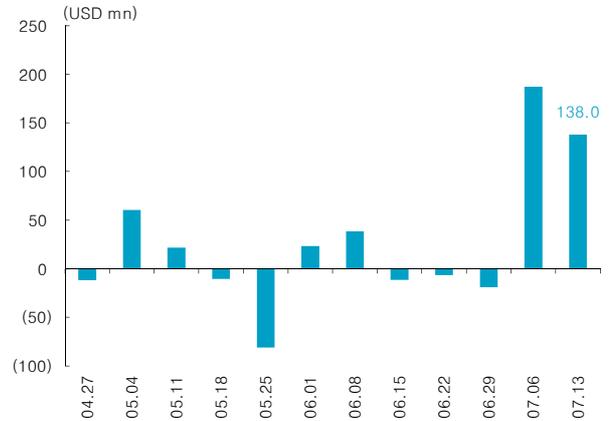
Weekly Money Flow – 브라질

[그림 72] 주간 Money Flow – 최근 12주(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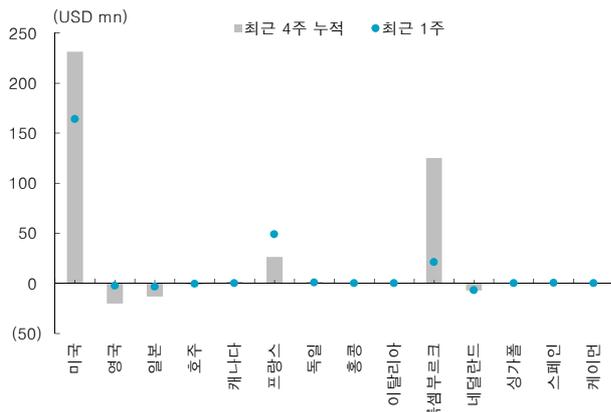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73] 주간 Money Flow – 최근 12주(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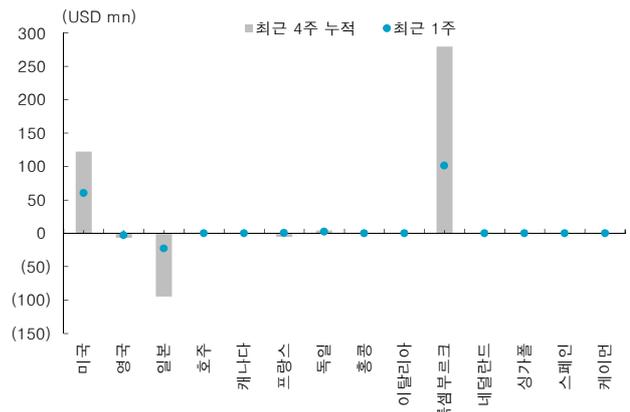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74] 브라질 Money Flow – 최근 4주 누적&최근 1주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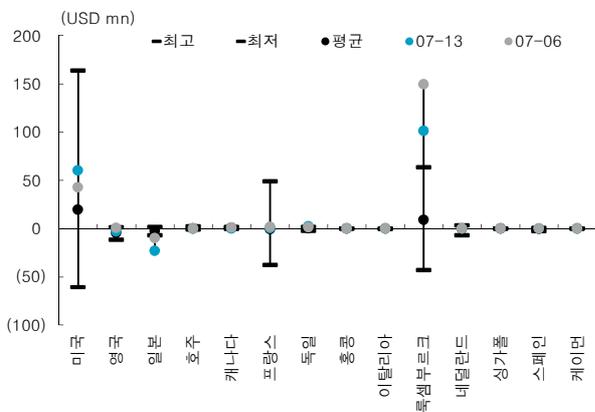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75] 브라질 Money Flow – 최근 4주 누적&최근 1주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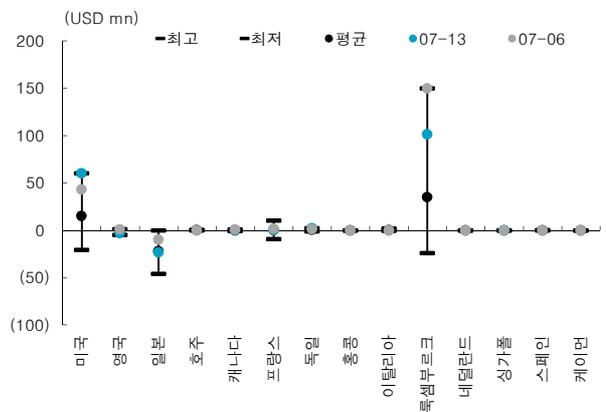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76] 브라질 Money Flow – 최근 12주 최고, 최저, 평균(주식)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77] 브라질 Money Flow – 최근 12주 최고, 최저, 평균(채권)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 2. 금융시장 동향

###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에 주요국 증시 일제 상승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하며  
주요국 증시 상승 마감**

- 글로벌 주요국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 미국 다우지수와 S&P500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일본 증시는 전주 비 8% 이상 급등했고, 유로지역 국가 증시 역시 4% 이상 큰 폭 상승했다. 지난 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압력 해소와 주요국 중앙은행이 추가 경기부양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일 상승렐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상품시장 변동성 역시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브렉시트의 불안감을 떨쳐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권 금리는 대다수 국가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세가 이어졌다.

- 지난 주 달러화 지수는 전주 대비 0.2p 하락한 96.1을 기록했다. 지난 주 영국 부동산 펀드 환매요구가 증가하며 1.3 밑으로 하락한 파운드화가 반등했으며 유로화 역시 상승전환하며 달러화 약세를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고용회복에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등하지 못하며 달러화 약세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완화정책이 이어지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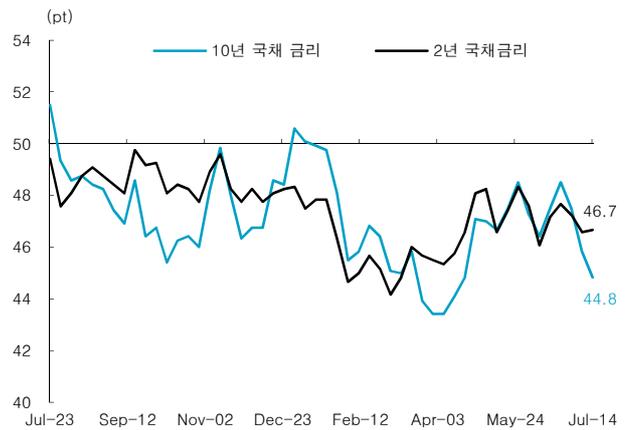
- 주가 확산지수는 전주비 0.2p 상승한 51.7을 기록하며 소폭 상승했다. 환율 확산지수는 달러화지수가 주요국 통화 강세로 소폭 하락하며 전주비 0.3p 하락한 52.2을 기록했다.

[그림 78] 주가 확산지수(3개월 평균)



참고: 50을 기준으로 상승은 주식 상승, 하락은 주식 하락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79] 채권 금리 확산지수 - 국고채 2년 & 10년물(3개월 평균)



참고: 50을 기준으로 상승은 국채금리 상승, 하락은 국채금리 하락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0] 환율 확산지수(3개월 평균)



참고: 50을 기준으로 상승은 달러화 강세, 하락은 달러화 약세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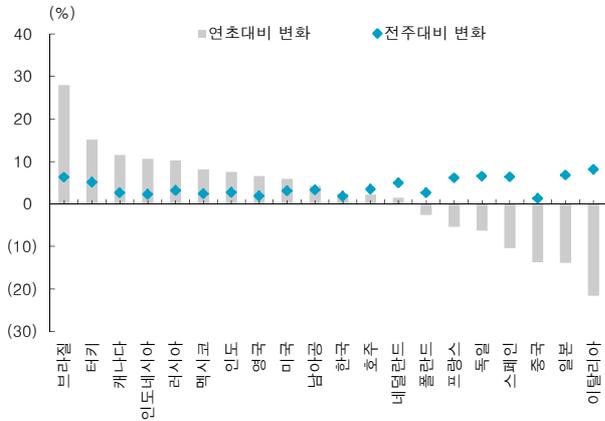
[그림 81] 변동성 확산지수(3개월 평균)



참고: 50을 기준으로 상승은 변동성 확대, 하락은 변동성 하락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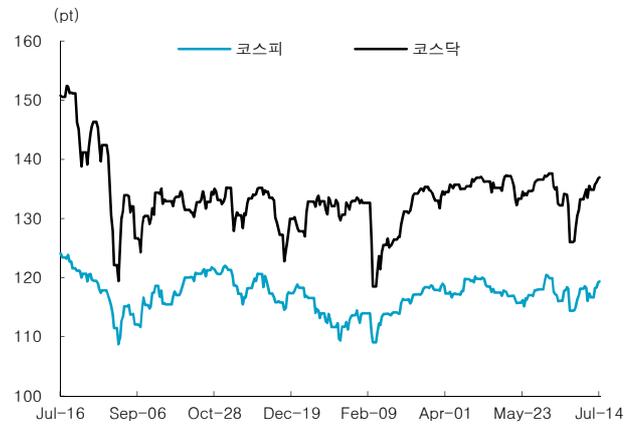
글로벌 주식시장 동향

[그림 82] 주요국 주가지수 연초대비 등락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3] 최근 1년 간 코스피 & 코스닥 주가 추이



참고: 2010.01.01 = 100 기준 지수화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4] 최근 1년 간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주가 추이



참고: 2010.01.01 = 100 기준 지수화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5] 최근 1년 간 주요 신흥국(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주가 추이



참고: 2010.01.01 = 100 기준 지수화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6] 최근 1년 간 주요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주가 추이



참고: 2010.01.01 = 100 기준 지수화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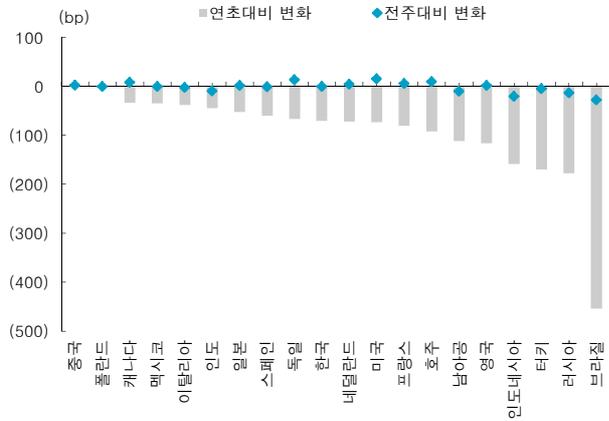
[그림 87] 최근 1년 간 주요 동유럽(폴란드, 터키, 남아공) 주가 추이



참고: 2010.01.01 = 100 기준 지수화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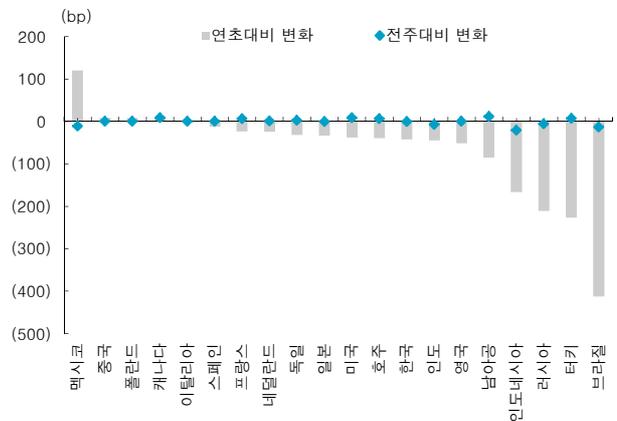
글로벌 채권시장 동향

[그림 88] 주요국 국채 10년 금리 연초대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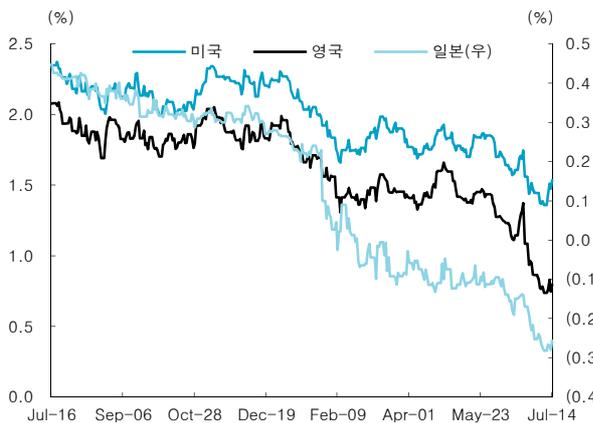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9] 주요국 국채 2년 금리 연초대비 등락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0] 최근 1년 간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10년 국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1] 최근 1년 간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2년 국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2] 최근 1년 간 신흥국(한국, 중국, 브라질) 10년 국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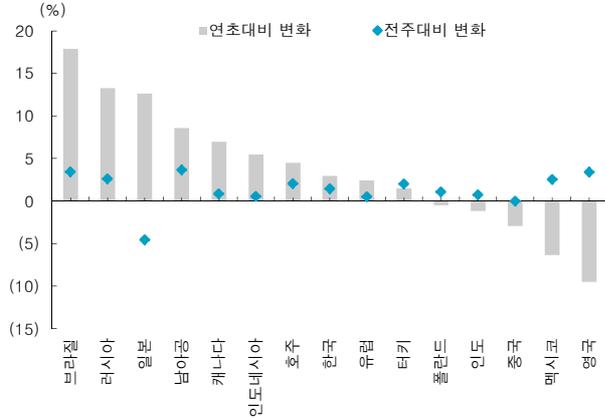
[그림 93] 최근 1년 간 신흥국(한국, 중국, 브라질) 2년 국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외환시장 동향

[그림 94] 주요국 달러화 대비 통화 절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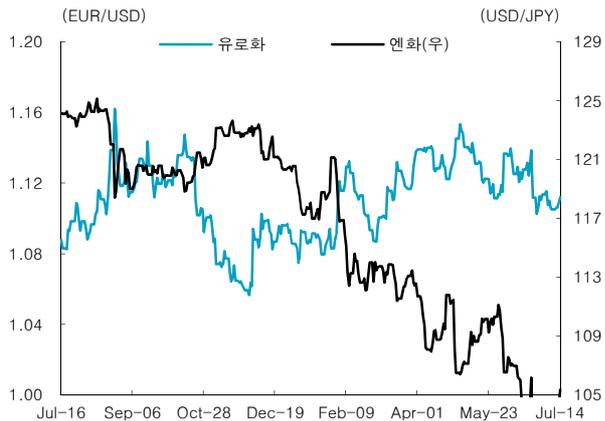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5]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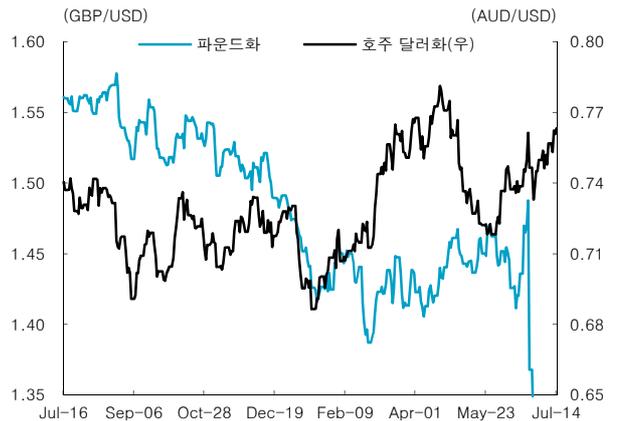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6] 달러/유로, 엔/달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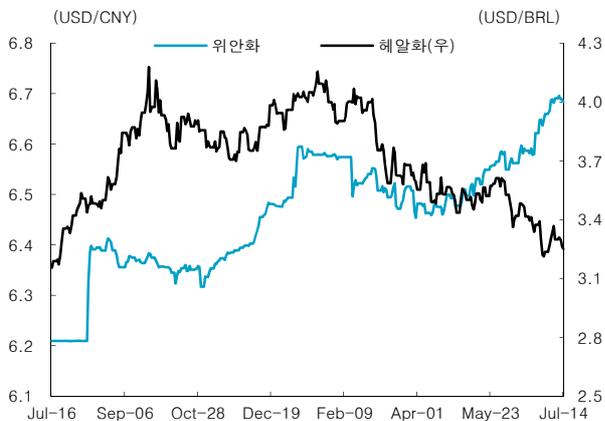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7] 호주달러/달러, 파운드/달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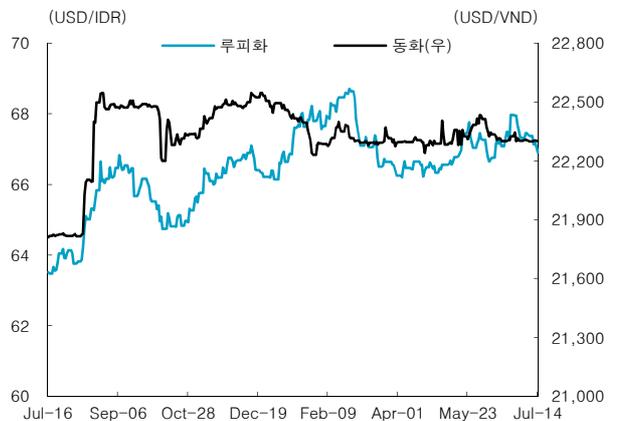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8] 위안/달러, 헤알/달러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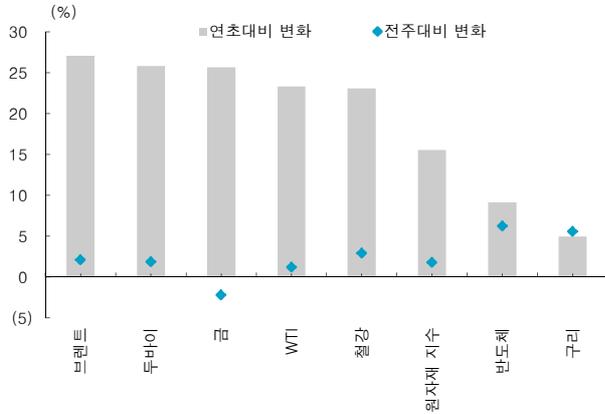
[그림 99] 루피/달러, 동/달러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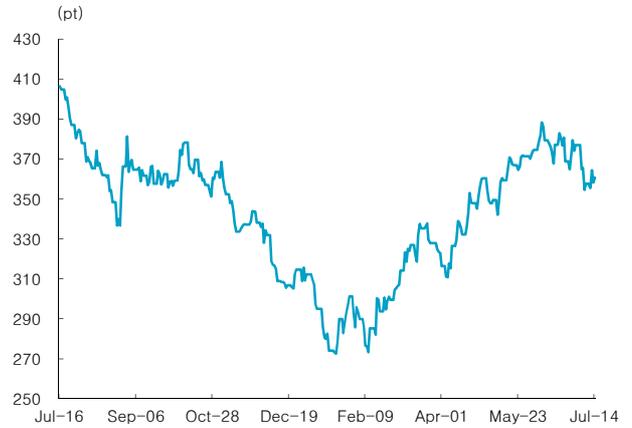
글로벌 상품시장 동향

[그림 100] 주요 글로벌 상품시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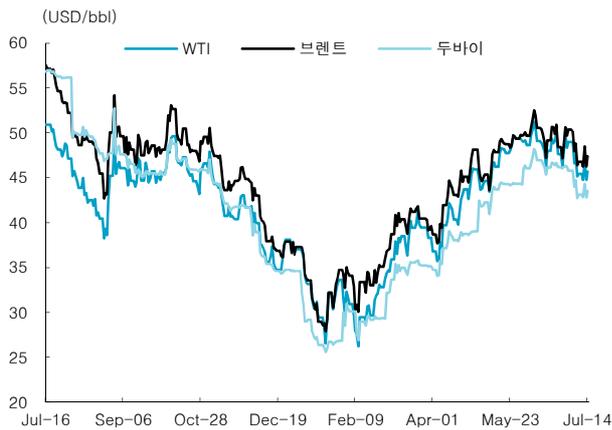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1] 골드만삭스 원자재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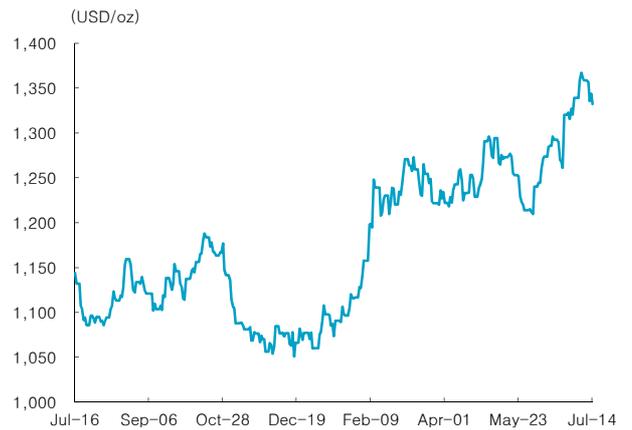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2] 국제유가(WTI, 브렌트, 두바이)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3] 금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4] 철강, 구리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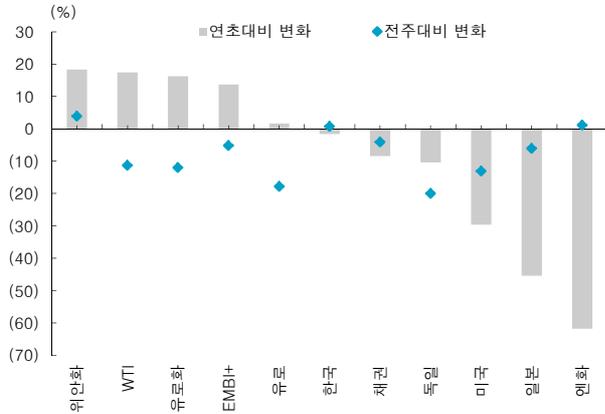
[그림 105] 필리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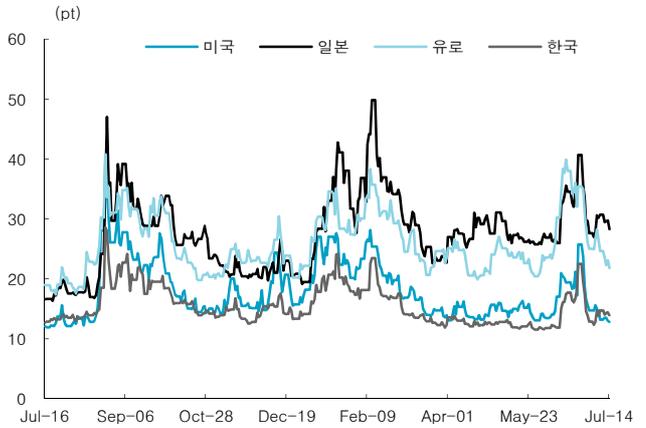
글로벌 변동성 동향

[그림 106] 금융시장 변동성 변화율(연초대비)



참고: 독일, 한국, 미국, 일본은 각 국가별 주식시장 변동성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7] 최근 1년 간 주요국 주식시장 변동성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8] 최근 1년 간 주요국 통화 3개월 변동성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9] 최근 1년 간 미국 채권시장 변동성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10] 최근 1년 간 상품시장 - WTI 변동성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11] 최근 1년 간 EMBI Plus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KIS 한국 경제전망

〈표 7〉 KIS 한국 경제전망

항목	단위	2016년				연간		
		1Q	2Q(F)	3Q(F)	4Q(F)	2014	2015	2016(F)
GDP	YoY %	2.8	2.7	2.1	2.1	3.3	2.6	2.4
	QoQ %	0.5	0.5	0.6	0.5			
소비	YoY %	2.2	1.9	1.6	1.7	1.8	2.1	1.9
건설투자	YoY %	9.6	3.7	3.2	1.1	1.0	3.8	4.4
설비투자	YoY %	-4.5	-0.6	-3.0	-3.8	5.8	5.2	-3.0
수출	YoY %	0.7	-0.1	-0.5	0.7	2.8	0.4	0.2
수입	YoY %	1.9	4.1	4.5	3.8	2.1	3.0	3.6
경상수지	십억 달러	24.1	28.5	19.5	24.1	89.2	105.9	96.2
수출(통관기준)	YoY %	-13.3	-6.6	-1.8	1.4	2.3	-7.9	-5.0
수입(통관기준)	YoY %	-16.3	-10.7	-5.1	-2.4	2	-16.9	-8.6
무역수지	십억 달러	22.3	27.5	23.3	28.0	47.1	90.4	101.0
소비자물가	YoY %	1.0	0.9	1.4	1.6	1.3	0.7	1.2
기준금리(기말)	%	1.50	1.25	1.25	1.00	2.00	1.50	1.00
원/달러 환율(평균)	원	1,201	1,163	1,180	1,185	1,052	1,130	1,180
엔/달러 환율(평균)	엔	115	108	103	104	106	121	108
유로/달러 환율(평균)	유로	1.10	1.13	1.05	1.05	1.33	1.11	1.08
원/100엔 환율(평균)	원	1,043	1,077	1,145	1,140	992	934	1,100
원/유로 환율(평균)	원	1,325	1,314	1,240	1,240	1,399	1,254	1,280

참고: 통관기준 수출입, 무역수지, 소비자물가지수, 환율 데이터는 2016년 2분기 확정치  
 자료: 한국투자증권

## 주요 경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1	12	13	14	15
<p><b>중국&gt;</b> *7/10 발표 6월 소비자물가 YoY (1.9%, 1.8%, 2.0%) 6월 생산자물가 YoY (-2.6%, -2.5%, -2.8%) *7/10~15 발표 6월 통화공급 M2 YoY (11.8%, 11.4%, 11.8%) 6월 신규위안화 대출 CNY bn (1,380, 1,000, 985.5) 6월 사회융자총액 CNY bn (1,630, 1,100, 659.9)</p> <p><b>일본&gt;</b> 참의원 선거 *7/10일 예정 5월 핵심기계수주 MoM (-1.4%, 3.2%, -11.0%)</p>	<p><b>미국&gt;</b> 6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94.5, 94.0, 93.8)</p>	<p><b>유럽&gt;</b> 5월 산업생산 MoM (-1.2%, -0.8%, 1.4%)</p> <p><b>한국&gt;</b> 6월 수출물가 YoY (-4.9%, n/a, -4.0%) 6월 수입물가 YoY (-4.9%, n/a, -5.1%)</p> <p><b>중국&gt;</b> 6월 수출 YoY (-4.8%, -5.0%, -4.1%) 6월 수입 YoY (-8.4%, -6.2%, -0.4%)</p>	<p><b>미국&gt;</b> 배이지북 공개 6월 생산자물가 MoM (0.5%, 0.3%, 0.4%)</p> <p><b>한국&gt;</b> 금통위 (1.25%, 1.25%, 1.25%)</p> <p><b>영국&gt;</b>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 (0.50%, 0.25%, 0.50%)</p>	<p><b>미국&gt;</b> 6월 소매판매 MoM (n/a, 0.1%, 0.5%) 6월 소비자물가 MoM (n/a, 0.3%, 0.2%) 6월 광공업생산 MoM (n/a, 0.3%, -0.4%) 6월 설비가동률 (n/a, 75.1%, 74.9%)</p> <p><b>중국&gt;</b> 6월 광공업생산 YoY (6.2%, 5.9, 6.0%) 6월 소매판매 YoY (10.6%, 9.9%, 10.0%) 2분기 GDP 성장률 YoY (6.7%, 6.6%, 6.7%)</p>
18	19	20	21	22
<p><b>미국&gt;</b> 7월 NAHB 주택공급자 심리지수 (n/a, 60, 60)</p>	<p><b>미국&gt;</b> 6월 주택착공 (천 호) (n/a, 1,170, 1,164)</p> <p><b>유럽&gt;</b> 7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20.2)</p> <p><b>한국&gt;</b> 6월 생산자물가 YoY (n/a, n/a, -3.1%)</p>	<p><b>유럽&gt;</b> 7월 소비자자기대지수 (n/a, -8.3, -7.3)</p>	<p><b>미국&gt;</b> 6월 기존주택판매 (천 호) (n/a, 5,470, 5,530)</p> <p><b>유럽&gt;</b> ECB 통화정책회의 (n/a, 0.00%, 0.00%)</p>	<p><b>미국&gt;</b> 7월 마켓 제조업 PMI (n/a, 51.5, 51.3)</p> <p><b>유럽&gt;</b> 7월 마켓 제조업 PMI (n/a, 52.0, 52.8) 7월 마켓 서비스 PMI (n/a, 52.3, 52.8) 7월 마켓 종합 PMI (n/a, 52.5, 53.1)</p>
25	26	27	28	29
<p><b>일본&gt;</b> 6월 수출 YoY (n/a, n/a, -11.3%) 6월 수입 YoY (n/a, n/a, -13.8%)</p>	<p><b>미국&gt;</b> 7월 마켓 서비스 PMI (n/a, n/a, 51.4) 7월 마켓 종합 PMI (n/a, n/a, 51.2) 7월 소비자자기대지수 (n/a, 95.0, 98.0) 6월 신규주택판매 (천 호) (n/a, 554, 551)</p> <p><b>한국&gt;</b> 2분기 GDP YoY (n/a, n/a, 2.8%)</p>	<p><b>유럽&gt;</b> 6월 M3 통화공급 YoY (n/a, n/a, 4.9%)</p> <p><b>미국&gt;</b> 6월 내구재 주문 MoM (n/a, -0.4%, -2.3%)</p> <p><b>한국&gt;</b> 7월 소비자심리지수 (n/a, n/a, 99)</p>	<p><b>미국&gt;</b> FOMC 회의 (n/a, 0.50%, 0.50%)</p>	<p><b>유럽&gt;</b> 7월 소비자 물가 예상 YoY (n/a, n/a, 0.1%) 2분기 GDP QoQ (n/a, n/a, 0.6%)</p> <p><b>일본&gt;</b> BOJ 통화정책회의 (n/a, n/a, -0.1%)</p> <p><b>미국&gt;</b> 2분기 GDP QoQ 연간화 (n/a, 2.6%, 1.1%) 7월 시카고 구매자협회 (n/a, n/a, 56.8)</p> <p><b>한국&gt;</b> 6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2.5%)</p>
8/1	2	3	4	5
<p><b>미국&gt;</b> 7월 ISM 제조업지수 (n/a, 51.7, 53.2)</p> <p><b>한국&gt;</b> 7월 수출 YoY (n/a, n/a, -2.7%) 7월 수입 YoY (n/a, n/a, -8.0%)</p> <p><b>중국&gt;</b> 7월 제조업 PMI (n/a, n/a, 50.0)</p>	<p><b>미국&gt;</b> 6월 PCE 디플레이터 MoM (n/a, n/a, 0.2%) 7월 워즈 자동차 판매 (백만 대) (n/a, n/a, 16.61)</p> <p><b>한국&gt;</b> 7월 소비자물가 MoM (n/a, n/a, 0.0%)</p>	<p><b>미국&gt;</b> 7월 ADP 취업자 변동 (천 명) (n/a, n/a, 172) 7월 ISM 비제조업지수 (n/a, n/a, 56.5)</p>		<p><b>미국&gt;</b> 7월 비농업 신규고용 (천 명) (n/a, n/a, 172) 6월 무역수지 USD bn (n/a, n/a, -41.1)</p>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